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 가운데 지진과 각종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자녀들을 주야로 보호하여 주시며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2월 18일 (토) 제 191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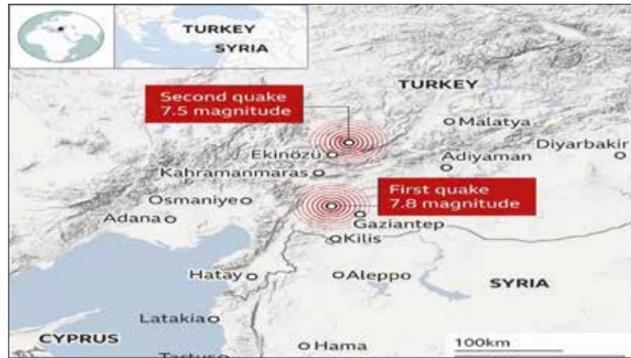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재난 현장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

CT, 터키/시리아 지진 현장에서 희망을 주고 있는 교회/선교 공동체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현재 사망자 수(2월 10일)는 21,000명을 넘어, 2011년 진도 9.0의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18,400명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를 기록했다. 터키 당국은 18,342명이 사망하고 75,000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시리아에서는 3,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이 부상당했다. 지금까지 60개국에서 7,000명의 구조 대원과 20,000명의 터키 인력을 지원했다. 터키 정부는 천막 9만2000개, 이불 100만장을 지원했고 인구 1350만명인 10도 지역에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현지에서 구호에 기여하는 교회나 선교 단체들의 추가 정보들을 수집해서 교회공동체가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Turkish and Syrian Christians Rally Relief After Earthquake Kills 20,000: UPDATE: As death tolls climb and with churches of all denominations destroyed, local believers race to the frontlines of emergency response).



새벽을 강타한 7.8 강진으로 인명 피해 많아

BBC, 과학 전문가 통해 지진 원인과 발생 지역 소개

지난 6일, 이른 새벽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튀르키예(터키) 남동부에 엄청난 지진이 강타해 현재까지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쳤다. 1차 지진이 가지안테프 인근을 덮친 데 이어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강진인 이 또 한 번 발생하는 등 여진 또한 끊임없이 이어졌다. BBC 과학 전문가, 팔람 로쉬를 통해 지진 발생 지역은 어디며, 인명 피해가 큰 이유를 살펴본다(Turkey earthquake: Where did it hit and why was it so deadly?).

인명 피해가 큰 이유는?

해당 지진은 공식적으로 메이저 규모(7.0~7.9)로 구분되는 규모 7.8의 지진으로, 약 100km에 이르는 단층선을 따라 발생해 단층 근처에 자리한 건물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위험 및 재난 대응 연구소'를 이끄는 조안나 포어 워커 교수는 "이번 지진과 동일한 규모의 지진은 지난 10년간 단 2번, 지난 20년간 단 4번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인명 피해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선 지진 규모 외에 또 다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바로 이번 지진이 시민들이 실내에서 잠자고 있던 이른 새벽 시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 지역의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카르멘 솔라나 화산학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학 부교수는 "안타깝지만 튀르키예 남부와 특히 시리아에는 내진 설계가 갖춰진 인프라가 많지 않기에 현장에서의 생존자 구조가 중요하다. 앞으로 24시간이 생존자 구조에 매우 중요하다. (지진 발생) 48시간 뒤부터 생존 확률이 무척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면으로 계속)



현지 기독교인들은 2만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한 터키와 시리아의 대규모 지진에 가장 먼저 대응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참담한 비극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탈라스(Gokhan Talas, founder of the evangelical Miras Publishing Ministry in Istanbul)는 "이것이 만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영적 성찰입니다."

그의 첫 번째 분능은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폭설과 파손된 도로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자, 그는 방향을 바꿨다. 그의 아내는 구호를 조율하기 위해 말라티아의 신도들에게 전화를 걸며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터키 전역의 그의 교회 및 개신교 신도들과 함께 담요, 약, 유아용 분유, 기저귀를 구입하여 고통받는 지역으로 계속 보낼 수 있었다. "영원의 이편에서는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Talas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다정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터키 관리들은 규모 7.8의 지진으로 5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13,000

명 이상의 수색 및 구조 인력이 배치되어 텐트 41,000개, 침대 100,000개, 담요 300,000개를 공급했다. 지금까지 거의 8,000명이 구조되었다. 2014년 시리아 난민 홍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FHA(First Hope Association) 이사회 의장(Demokan Kileci)은, 개신교 협회(Association of Protestant Churches)와 "어깨를 맞대고" 일한다고 말했다. 견고한 4x4 차량으로 첫 구호품을 운반하면서 그는 터키 수도 앙카라에 있는 그의 집에서 남동쪽으로 440마일을 운

전하여 진원지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가지안테프까지 운전하는 데, 표준 시간의 두 배인 14시간이 걸렸다. FHA의 이동식 위생 장치 5개 중 하나와 이동식 빵집이 그곳에 있었다. 다른 두 대는 고대 성경에서 안디옥으로 불렀던 안타키아에, 네 번째는 진도 7.5의 여진이 발생한 카라만마라수에 파견되었다. 다섯 번째는 동쪽으로 200마일 더 떨어진 디야르바키르로 갔다. 전체적으로 10개의 터키 도시가 황폐화되었다. 시리아 도시를 포함하면 보스턴에서 워싱턴 DC까지 동부 해

안을 파괴하는 뉴욕시의 진원지가 상상되는 것보다 더 먼 거리이다. Kileci는 "우리는 조국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터키 복음주의 라디오 방송국(Shema Media Group)도 공급품을 가져오고 있다. 동 방송국 소네르 투판(Soner Tufan)은 전기 부족으로 현지 신호가 끊긴 안타키아를 방문했다. 그러나 다른 곳의 청취자들은 당분간 침묵한 톤을 들게 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민정엽 목사



푸른초장 허상희 목사



인터뷰 권호 교수, 임도균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Nouvelle Dental
윤새롬 치과
Lily Yoon DMD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LILYDMD.COM
(917) 908-0075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제28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3년 4월 24일(월) - 4월 29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2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Se-Rang Community Church) | 국제제자훈련원



발행인 칼럼

내가 사는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오늘도 나는 살고 있다. 나 뿐이 아니다. 만날 수는 없어도 온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루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가. 수년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소진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 이야기는 한국이나 일본 등 일부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온종일 바쁘게 뛰어다녀도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인생을 소풍같이 살자는 시인도 있다. '하루 또 하루/ 실낱같이 이어지는 삶/ 매일 매일이/ 소풍이라고 생각하자/ 힘들고 슬플 때도 있지만/ 가슴 설레는 일도 많은/ 너와 나의 인생살이/ 소풍 놀이 하듯 살아가자----' 매일을 소풍처럼 산다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말해 주는 여유로움이 있어 좋는데, 인생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그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뜻깊게 말하는 이런 노랫말도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있지----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여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노래하는 사람이 내가 사는 이유는 인기를 얻겠다,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힘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숙연하게 노래한다.

얼마 전 한국 KBS에서 방영된 '마에스트로 클래식'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다. 독일과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가 사는 이유는 분명해 보였다. 작곡자의 음악 세계를 깊이 연구하여 교향악단으로 잘 표현하여 관중에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려는 웅장한 목표와 함께 다음 세대의 지휘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여러 기회도 주려는 섬세한 목표도 갖고 있었다. 그 영상에서 지휘자가 되려는 꿈을 가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저의 꿈은 연주자들을 이끌어 교향악단 전체가 하나 된 상태로 음악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음악적으로 친근하게 청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지휘자가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하고,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경이로웠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계시다. 며칠 전에도 폐에 연관된 수술을 하셨는데 늘 건강하시지는 않다. 그래도 새벽기도회에 빠지시는 일이 없으시다. 권사님에게 앞을 못 보는 아드님이 계시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그렇게 되었으니 본인도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권사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셨다. 그 아들을 돌보아야 한다. 자기는 아들을 낳고 죽을 수가 없으시단다. 권사님이 갖고 계신 삶의 집착은 아들 때문이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권사님은 자신의 몸이 아파도 다르게 사신다.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냐.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지. 이 진리만 분명히 인식한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활동의 결정적인 요소(1)

CT, 아주사퍼시픽대학 정수진 교수의 무속신앙의 토양에서 자란 한국기독교의 씨앗

개신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안고 1880년대 한국에 도착했다.

이 시기는 개신교 선교의 황금기였고, 선교 기록에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영적 분위기에 대한 자세한 특징이 담겨 있었다.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종교적인 삶의 증거를 거의 찾지 못해 당황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한국에서 유교는 단지 삶의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침 역할만을 한다고 생각하여 비종교적인 나라로 한국을 정의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틀렸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에 정착하면서 곧 무속신앙이 한국의 핵심 신앙임을 깨달았다. 미국 선교사 호머 B. 윌버트는 그곳에서 관찰한 애니미즘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 숭배 관습에 '영적 예배(spirit-worship)'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동료 선교사 조지 헤버 존스는 한국에는 무속과 불교, 유교가 혼합된 종교적 현상이 풍부하다고 평했다.

존스는 '한국교회의 부흥'이라는 기록물에 무속신앙은 한국인의 영혼에 '호소'했고 "두려움으로 영감을 주었다"며, "불교는 존경으로 한국인의 마음에 호소하고 영감을 주었고, 유교는 존경과 추앙으로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고 영감을 주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이러한 선교사들은 무속신앙이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고 맥락화하는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실용신학과 정수진 교수는 선교사들이 무속신앙을 통해 한국인의 영적 세계에 대해 깊이 인식했고, 이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 또한 여성 무당들의 영적 힘과 권위는 한국에서 '여성 전도자'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The Seed of Korean Christianity Grew in the Soil of Shamanism: An awareness of the spirit world was a crucial component in missionary efforts to spread the gospel). 2번으로 나누어서 다음 호까지 연재한다.

기독교는 어떻게 한국에 정착했는가?

한국에 천주교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국내 학자들이었다. 1700년대 중국에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의 '천국의 참 의미'를 중국어로 연구해온 현지 젊은 학자들의 모임에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1784년 한반도로 돌아와 천주교를 전파하였다.

한국에서 천주교가 성장하면서 이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도 커졌다. 18세기와 19세기 초에 박해와 순교가 시작되었으며, 1866년 대항제국의 대원군 치하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일어났다. 이후 명성황후가 1874년 퇴위 후 의세와 조약을 맺어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독교는 그 이후로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전국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은 개신교, 8%는 천주교였다.

그러나 무속신앙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널리 강력하게 퍼져 있으며, 매년 약 50,000개의 무속신앙 관련 의식이 성대하게 서울에서 열린다.

뿌리 깊은 애니미즘 무속신앙은 인간이 조상의

영혼이나 나무나 달 같은 사물 등 다양한 영혼과 교감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민속신앙이다. 시베리아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10세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에 존재했으며, 누가 무속을 한국에 들여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고학 자료를 통해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속신앙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무속신앙은 무속인들이 입는 복장, 영혼과 교류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과 소통하는 방식 등에서 독특한 차별점이 있다. 대부분의 전 세계의 무당들은 무아지경에 빠지고 영혼이 그들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통해 영혼 세계와 접촉한다. 그러나 한국의 무당들은 영혼들을 그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한다.

무당이라고 부르는 여성은 곳을 하며 노래와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제물을 준비한다. (박수무당이나 남성 무당도 존재하지만 주로 여성이다.)

이러한 의식을 하기 위해 무당은 장식된 화려한 무지개 무늬 의상을 입는다. 그들의 역할



은 곳을 통해 아이의 이름을 고르는 것이든, 상스러운 혼례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든, 풍년을 가져오는 것이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세상과의 접촉

한국의 무속신앙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상에 수 많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초기 선교사들은 이러한 측면을 이해했다.

윌버트는 '한국 민화'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영혼은 어디

에나 존재하고 어디에서나 나타낸다. 문고리나 젓가락도 한 사람의 전체 운명을 바꿀 힘이 있는 영혼이 머무는 곳일 수 있다."

무속신앙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이 이미 그들의 세계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존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외국인인 무속신앙을 침입한 것으로 보았고, 결국 천주교와 개신교 선교사들도 무속신앙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Pray for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를 위한 제1차 긴급구호기금
E.M.A.K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될 이번 지진은 2월12일 현재 3만7천여명의 사망자와 수 십만명의 부상자, 수 백만명의 이재민을 기록하고 있으며 2십여만명이 여전히 매를 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현지주민들에게 구호금이 직접 전달 될 수 있도록 모금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이슬람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오렌지카운티 교회가 아래와같이 마음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모금액 전액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남가주 교회와 성도님들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모금참여 방법 : 개인, 교회, 기업과 단체, 기관별 참여가 가능합니다. (Tax deductible)
Payable to : The Council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in Orange County (KCCOC)
메모란에 c/o Turkey & Syria (터키와 시리아) 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Mail to :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

- 1. 제1차 긴급구호기금 목표액 \$100,000 전액전달
2. 4월/5월 중 선교대표단이 현지를 직접방문, 교회재건과 지역주민 회복에 사용하게됨
3. 현지선교사 선정은 참여교회가 후원하는 현지 선교사와 공신력있는 선교기관의 추천을 통해
4. 헌금접수 진행사항과 현지선교사 추천사항은 미디어기관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될 예정

모금에 관한 문의 : (714) 722-4805 심상은목사 (714)873-9164 윤우경 홍보위원장

준비위원장 : 심상은목사(갈보리선교교회/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준비위원 : 박재만, 추석근, 이영선, 강순영, 안신기, 김영찬, 황선철, 김용진, 김영수, 황선철, 윤우경, 신용, 민길, 이경신, 이선자, 김수연, 박용일 등 (추가 중)

주최 :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공동주최: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 미러클포인트교회, 선한뜻교회, 세리토스총만교회, 효사랑선교회, 시민권자협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리파운더스유나이티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서남부지방회, CBMC(남가주연합회, 가든그로브지회) 등등 (계속 접수 중)

후원미디어기관: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복음방송, CHTV,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천위클리, 크리스천헤럴드, 사랑과사회, 기독교일보, 크리스천비전 등 (추가 확인 중)

재난 현장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

(1면에서 계속)

그는 "터키는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저희는 방송을 느린 기독교 음악, 성서, 뉴스 업데이트로 변경했습니다."

지진의 영향을 받는 지역 교회 기자들과 복음주의 위성 TV 네트워크인 SAT-7 Turk는 터키어와 영어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진 당일 첫 생방송 프로그램인 홈페이지는 영적 지원이 필요한 시청자들을 불러모았다.

방송국은 지진 후 뉴스레터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을 가져올 때"라고 썼다. "우리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그리스 정교회 사제인 에마드 다헤르가 알레포의 멜카이트 대성당이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명예 대주교(Jean-Clement Jeanbart)는 간신히 탈출하여 입원했다.

알레포에서도 장로교의 전체 기반이 흔들렸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여자들은 울고, 남자들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네세르(Ibrahim Nseir)목사는 말했다. "아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몇 분 안에 인근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공원으로 달려갔다.

침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Nseir는 노숙자들과 다음에 집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회 소속 복음주의 학교를 열었다. 해 질 무렵 그는 사회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노약자,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포함한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보호소의 수용 인원이 최대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있었다.

장로들, 주일학교 교사들, 여성 사역 지도자들이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

Nseir는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라우마가 너무 많고 도전이 크며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교회가 포함된다. 기부금은 시리아와 레바논의 전국 복음주의 총회를 통해 제공될 수 있지만, 권유가 그의 주요 메시지는 아니었다. 대신 그의 초점은 지역 경제를 마비시킨 미국이 부과한 제재에 있었다. 심각한 의약품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으며 관측통들은 국제 구호 노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탄원은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멜카이트그리스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시리아 총 대주교에 의해 반영되었다. 이 주제는 MECC(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사무총장인 Michel Abs가 말했다.

그는 공개서한에서 "원칙적으로는 자연재해지만 봉쇄가 부과된 탓에 인제로 봐야 한다"고 썼다. "나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유엔 운송은 마침내 터키와 시리아 사이의 승인된 회랑을 통해 들어왔다.

피해를 입은 터키 지역에는 많은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디스트와 연계된 민병대가 시리아 북서부 국경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 그곳의 사상자는 이제 1,500명을 넘어섰고, 여전히 다마스쿠스의 주권 아래 있는 도시들에서는 약간 더 많다. 미국이 지원하는 북부 및 동부 시리아 자치 행정부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다. 그만큼 이유가 있다. 다음날 규모 5.6의 여진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시리아 십자가는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공공 공원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쿠르드족 적신원사(Kurdish Red Crescent)와 협력하고 있다. 이 조직은 시리아 당국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일할 수 없다.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다. Nseir와 마찬가지로 알레포에 있는 아르메니아 복음주의 베델 교회는 지진 이후 매일 밤 500명의 사

람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한때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Sts에 200,000명이 살고있는 안타키아에서, Peter and Paul 교회는 남겨진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이며 실랑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국제 기독교 구호 단체로는 Send Relief, Caritas, Aid to the Church in Need가 있다.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에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중동 및 북아프리카 복음주의 연맹, 이스라엘 복음주의 교회 협약이 포함된다.

또한 아르메니아 복음주의 선교 협회, 침례교 세계 연합, Missio Nexus도 참여하고 있다. 정교회 협회에는 북미 안티오키아 정교회 기독교 대학교와 미국 그리스 정교회 대학교가 포함된다.

사실, 도전은 엄청나다. 이번 지진은 3만 명이 사망한 1939년 이후 터키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그리고 사망자 수(확실히 더 증가할 것임)는 1999년 지진으로 17,000명이 사망한 이후 터키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 교회가 더 잘 갖추어져 있다. Kileci의 FHA는 지난 10월 이즈미르에서 열린 지진 워크숍에 참여했으며 난민 구호 및 소규모 자연재해 대응 경험이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탈라스 목사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 일주일 안에 그는 그 지역에 도착하여 지역 신자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크다. 탈라스는 1999년에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를 기대한다. 기독교 의사와 엔지니어들은 이미 최전선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터키 사람들처럼 신자들도 이웃을 돕기 위해 집결했다.

"이것이 교회의 시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은 아라비아반이 북쪽으로 이동해 인근의 아나톨리아반과 충돌해 발생했다.

터키 근처의 이러한 판 충돌은 과거에도 피해 규모가 매우 컸던 여러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1822년 8월 13일엔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7.8의 이번 지진보다는 훨씬 강도는 약했으나, 19세기에 발생한 해당 지진으로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서만 7000명이 사망하는 등 인근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여진마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현재도 여진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과거 발생한 대지진과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 규모 측정법

현재 지진 규모는 '모멘트 규모(Mw)'라는 단위로 측정한다. 과거엔 '리히터(리히터) 규모' 단위를 사용했으나, 이는 정확도가 떨어져 구식으로 취급된다.

지진 규모는 단층선이 이동한 거리와 단층선을 움직인 에너지의 조합을 나타낸다. 규모 2.5 이하의 지진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감지하기 힘들지만, 계측기로는 감지할 수 있다. 규모 5.0 이하의 지진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으며 경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규모 7.8을 기록했는데, 이처럼 규모 7.0~7.9 사이의 지진은 'major'로 분류되며 이번 경우에서처럼 보통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규모 8.0 이상의 지진은 중심지의 지역사회를 완전히 파괴하는 등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시론

힘을 빼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75년에 걸쳐 72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추적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인생성장보고서>라는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였다. 거기에서 인생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나 학벌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거나 명예나 학벌이 대단하면 행복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실제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면 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첫째, 고독은 해롭다.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며 오래 산다. 둘째,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50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80세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할 확률이 높다. 친밀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노화를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보호한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주도권 다툼 때문이다. 가정에서 부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 수십 년을 살면서도 주도권 다툼이 끝나지 않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 주도권 다툼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다. 그뿐만 아니다.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도권 다툼은 있다. 노골적으로 다투는 상황은 아니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문제는 심각하다. 주도권 다툼의 출발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데서 시작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옳고 아내를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소." 이렇게 말로 주장하지는 않을지라도 내면에 이런 생각을 갖는 한 인간관계가 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힘을 빼야 한다. 모래 웅덩이에 빠졌을 때 타이어의 바퀴를 빼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운동을 하는 데도 운동 고수들의 자세를 보면 힘을 빼고 유연하다.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다. 대화할 때도 힘을 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소통해야 대화가 이루어진다. 힘으로 상대를 누르지 않고 목소리에 힘을 빼고 얼굴 표정에 힘을 빼고 배려와 겸손함 속에서 상대를 세워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빠지기를 바라신다.

요셉도 17세에 한창 꿈을 꾸면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그 힘을 빼고 총리가 되게 하시는 데 13년 세월이 걸렸다. 모세 나이 40일 때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다.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힘이 좀 빠졌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밭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으니 역시 철저히 힘을 빼라는 주문이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40세가 될 때까지 사울의 칼날에 쫓겨 다니게 하면서 힘을 빼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도 먼저 힘이 빠져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역시 힘을 빼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되었다.

젊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갔기에 아내와 갈등이 많았다. 무엇이든지 내 주장대로 하고 싶어 했다. 조금씩 내 주장을 꺾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니 아내가 행복해한다. 아이들에게도 주도권을 놓치기를 싫어했기에 아이들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던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내 목회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공연히 큰 소리로 설교하기도 하였다. 되도 않는 주장으로 목청을 높여 교인과 다투기도 하였다. 힘을 빼고 나를 비우기 시작하니 교인들과 다툼 일도 적어진다. 확실히, 힘을 빼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minkyungyob@gmail.com

2023 목회자, 사역자를 위한 한이레와 신부의 영성 End Time Bible Prophecy Seminar for Pastors

일시: 2023년 3.14(화) -16(목) (14일, 3pm -16일, 3pm)

장소: 미주 마가다락방 기도원 270 Harrington Dr. Austerlitz NY 12017

성경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한이레를 깨닫고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장소관계로 약간의 선착순(정원인원)만 받습니다.

문의/무료등록

카톡ID: okgii 814.882.1278 erielee 814.602.5126

Zoe 섬김이 Main Staff



정재경 장로 섬김장, 김선미 권사 주방장, 백켈리 간사 예배찬양, 김영희 권사 ER의료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강사로 해외 및 미 전역으로 목회자의 영성을 깨우는 사역을 하고, 현 KAPC, 미주한인 예수교장로교 소속의 목사로 펜실베이니아 이어리한인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주최: Zoe Ministries USA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 청빙 대상 및 자격
 -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확중인 분
 -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 지원 자격
 -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원 가능)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 (6) 설교-최소 2편 이상(설교 주소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 (7) 가족사진
- 지원 방법
 -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 보낼 곳(우편 주소):
 -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림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성 프랜시스와 클라라의 연모

두 분 모두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당시 아시시에서 12Km 떨어진 현재 움브리아의 행정 수도인 페루지아(Perugia,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소속되었던 축구팀이 있음)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아시시가 페루지아에게 패했다. 고로 참전했던 프랜시스(Francisco 1182-1226)는 포로가 되어 1년 동안을 페루지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암울한 옥살이 중에 회심을 경험했고 따르는 동료들과 함께 벌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을 포르치 움골라(Porcuncola, 작은 모임)라고 칭했고,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 본격적인 수도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난의 벗이 되려는 정신으로 출발했고, 거친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탁발하며 살도록 규정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거지와 방불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은 당시의 기독교의 화려한 교회와 지도자들과는 판이한 모습이었다. 이런 운동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당시 아시시의 귀족 가문의 딸, 클라라(Clara 1194-1253)는 가족과 함께 고난 주간에 프랜시스에 전하는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 눈물을 흘렸고 주님을 쫓기로 결심했는데 그 때가 18세 때였다.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가 Chiara기념 성당에 전시되어있는데 그 옷 길이를 추정해 볼 때, 프랜시스보다 크고 날씬하지 않았을 거 같다.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가 소녀였고, 귀족으로 미모의 소유자이었으니

흠모하는 젊은이들이 대단했을 것이다. 클라라가 존경한 프랜시스, 그 존경심이 연모의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클라라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순수함을 대하는 프랜시스의 마음도 수없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성 프랜시스의 전기를 보면 남자 수도사들이 여자 수도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한창 피가 끓는 젊은이들이었으니 이성에 대한 욕망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끌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기 위해 프랜시스는 어느 날 날카로운 가시를 지닌 장미들이 가득한 포르치 움골라 교회의 정원에 알몸을 던졌다고 한다. 장미는 그 순간부터 가시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곳의 정원에 있는 장미들은 놀랍게도 전혀 가시가 없다. 가시 없는 장미는 세상에서 그곳에만 존재한다고 한다.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만 다 그리운 사람이 있는 건너편

수도원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프랜시스를 염려하여 자신의 수도원에 와서 간호받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공적인 방문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섬세하고 자상한 돌봄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그로 인해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서원이 어그러질지 모른다는 경계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아마도 프랜시스는 육정이 일어날 때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심각한 고행을 선택했을 것이다. 가령 통풍이 사정없이 고통을 주는 어간에 정욕을 치심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적잖았을 것이다. 우리가 친숙한 말틴 루터나 칼빈은 열 가지도 넘는 병들을 몸에 달고 살아야 했다. 성 프랜시스도 기도 중에 오상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라베르나 산에 올라가 병든 몸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기도 후에 걸을 수조차 없었다고 한다. 시력을 잃어버려 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어느 농

부가 그를 나귀에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어야 했다. 그는 금식과 고행으로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혹사하였고, 결국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44세라는 한창 일할 나이에 말이다. 그의 기도처인 Eremo dell Carceri에 가면, 지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침대로 삼았던 바위를 깎아 만든 우묵한 곳이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처절한 노력으로 클라라를 연모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싶다. 연모하였지만, 그 불같은 마음을 주님을 위해 평생 절제했을 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것은 아닐까 싶다. 클라라는 평생 성 프랜시스가 정한 규범과 사상을 충실하게 실행했다. 저들은 영원하고 고귀한 사랑을 불잡기 위해 온몸을 불사른 삶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연모>하는가?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허상희 목사
(뉴저지 성도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귀족과 청년들을 포로로 끌고감으로 구심점을 형성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토에 남은 가족들을 위협하기 위한 불모로 삼았습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속에 유다 백성들은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압당한 현실 가운데 탄식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은 고난과 역경의 골짜기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실까요?

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찾지 못하게 숨어 계신 분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기스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의 전부 아님을 알게 하고요, 전에 없던 놀라운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

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3.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14절) 우리 모두는 잘 되고 잘 살아야지 하는 소망 있습니다. 요즈음 웰빙을 많이 부르짖습니다. 웰빙(Wellbeing)이 잘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된 자들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기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찾을 수 있게 숨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레미야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

수님 편에서 있는 것인지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지요?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폰서 정도로 여기지 말고 그분을 내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의 거리가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면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나의 주님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사니?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됩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희망이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안에 내가 너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것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날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기쁘고 기도 응답을 누리며 말씀에 확신을 갖고 부지런히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가 주시는 기적의 간증 거리가 넘치고 만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sheo1004@gmail.com

하나님은 나의 소망

예레미야 29:10-14

1. 그의 백성을 돌아보심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10절) 렘 29:10 "나 여호와와 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더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를 방문하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 시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시련의 시작점에 어떤 분은 시련 중에 있고 어떤 분은 시련의 끝자락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한이 차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

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을 수 있게 숨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80세에 가시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 방탕하였습니다. 술과 여자로 살고 있었습니까. 방탕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암브로시우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 보라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롬 13:11-14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게 되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지 않는 절대 안정을 갖게 되었다면 변한 것이고 또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행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2.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12, 13절)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반드시 듣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우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절망

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 잘 되어지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신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일방적이지 않고 주님과 대화입니다. 기도 속에는 소망과 감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로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듣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확신을 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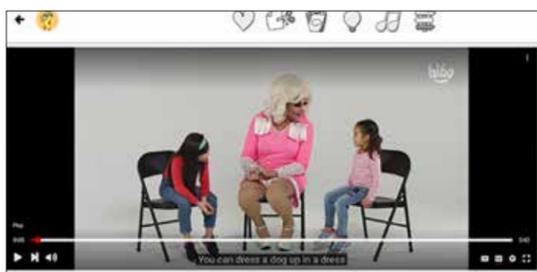
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관계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웰빙이고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압당한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모두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희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14절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재앙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시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에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지 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YouTube kids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상사진1



영상사진2

예전에는 케이블을 통해서 TV를 많이 봤다면 이제는 YouTube라는 플랫폼으로 무엇이든지 보고 싶은 방송을 쉽게 찾아 골라볼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짧은 영상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YouTube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플랫폼인 YouTube Kids 입니다.

YouTube Kids란, 말그대로, 유튜브에서 어린이 전용으로 만들어놓은 어린이 유튜브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의 생각에는 자녀의 나이에 맞춘 콘텐츠만 볼 수 있게 셋업을 해주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을 보시고 과연, 유튜브 키즈(YouTube Kids)가 생각만큼 안전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YouTube Kids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절대 봐서는 안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직접 YouTube kids에 접속해 제일 궁금한 Gay, Queer 단어를 입력해 영상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영상이 눈에 들어왔고 아이들 나이에 절대로 적절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우리 자녀들이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사진1은 어린이 전용 유튜브에 있는 Drag Queen(드래그퀸)으로 불리는 여장을 한 남자가 10살도 안된 보이는 소녀

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기가 동성애자 게이임을 세상에 알렸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환영 받은 것이 얼마나 재밌는 경험인지, “동성애자-게이”임을 선포했던 자신의 행동을 재밌게 표현하며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에게 게이가 친근할 수 있도록 주입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드래그 퀸의 옷 입은 것도 주목해보세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한 모습일까요?

영상사진2에서는, 게이라는 단어는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찬 것”이라고 알려주며 문장을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동성애 게이가 “행복, 즐거움”으로 각인을 강렬히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새 노래 소리를 들으며 게이(즐거움) 시간을 보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는 거리가 아주 먼 영상들입니다. 지금 Youtube Kids는 LGBTQ 단체에서 밀고 있는 반성경적 아젠다를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영상들이 버젓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꿈과 희망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같은 빅테크들이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은 상관없이 그저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TVNEXT.org)가 매년 급증하는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립학교의 무분별한 정체성 교육에서부터 이제는 디즈니나, 유튜브같은 기업들까지 나서서 어린아이들의 정체성을 돈으로 사드리며 혼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간 채팅방에서 오고 간 어른들의 대화가 눈에 들어와 변역/의역해 보았습니다. Darwizzy(동성애 찬성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짧고 단 한 번밖에 없으니 괜히 남의 일에 화내지 말고 다른 사

람들이 누구와 사랑을 하든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야’

CM0303 (학부모): ‘오, 말하면 잘했네, 그게 바로 나도 하고픈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성향을 세상에 자주 과시하고 세뇌하려고 하지 말라고!! 너희가 어떻게 살든 우리 상관안해. 단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성향을 계속 드리미지 말라는데 거야. 우리 아이들을 제발 가만 놔두라구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만약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다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TV, Tablet, 핸드폰 아이들에게 쥐여 주시나요?

영국 심리학박사 에릭 시그먼의 논문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아이들은 TV를 절대 보면 안 되고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권장하는 최고의 시간은 “3-7세는 하루 30분정도, 8-12세는 한 시간정도, 13-15세는 1시간반정도”라고 했습니다. 잠깐, 정해진 시간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단체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자료를 조사와 실제 자녀 상담들을 통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격과 성품을 세우 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교육적인 screen time을 볼 경우 정해진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어도, 매우 건강하고 인성과 신앙을 높이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스크린 시간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에게는 “좋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바꿔주면 차츰 보는 시간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꿈과 비전, 삶의 목적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TV 시청 습관을 고치는 것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데 핸드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드라마, 영화에 빠져있다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NEXT.ORG 에서 보지 말아야 할 책 / 미디어와 보면 좋은 책 / 미디어에 대한 추천을 올려놓고 있으니 자주 가져서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정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교회에서 1년째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회 회장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제 젊음과 인생을 가장 값진 것에 제 인생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꼭 주의 종이 되는 길이 아닐지라도 평신도로서 저의 전문분야를 통해 섬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있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에서 KIM

A: 네비게이트 출판사에서 나오는 월터 헨릭슨이 쓴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제자훈련의 교본과 같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베후 3:10-12절을 인용하며 종말에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래서 주의 날에는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지는데 하늘과 우주 자동차, 집, 빌딩, 재산 등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영역은 종말에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가치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할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예수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혼”

첫째가 예수그리스도(Jesus Christ)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히 13: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The word)입니다. 마 24: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내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영원하고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셋째가 사람의 영혼(man's soul)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100세면 웬만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영혼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불신 영혼은 하데스(음부)라는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에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가치있고 영원한 투자입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교육시켜야 합니다. 둘째, 불신 영혼들을 전도해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말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말입니다. 그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셋째 아직 어린 크리스찬을 제자훈련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전문직을 통해 이 3가지에 투자하십시오.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는 현 담임목사님께서 65세에 은퇴하시고 선교지로 파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청빙 조건

1.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졸업 후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으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 목사 및 부목사로 3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2. 확고한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성숙한 신앙 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분
3. 만 55세 이전의 나이로 다음 세대와 이민교회 미래를 위한 비전이 있으신 분
4.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고 미국 내 체류 및 목회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신앙 고백 및 자신의 비전에 영향을 끼친 책이나 신학자, 목회자 인용)
3. 학력 증명서
4. 속해있는 교단의 노회에서 발행한 안수 증명서
5. 신학교 교수 및 명망 있는 목회자의 추천서 (추천자의 연락처 포함)
6. 최근 설교 영상 2편 (온라인 링크) * 설교 원고 포함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출 마감일: 2023년 3월 15일
3. yspastor2023@gmail.com으로 보내시고 첨부파일은 PDF file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충만·기도충만·성령충만·사랑충만
영생장로교회

Yuong Sang Presbyterian Church
706 Witmer Road, Horsham, PA 19044
http://www.yspc.org | 215-542-0288

영생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품격(品格)

미국 방위사업체 CEO 빌 스완스가 정리한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에 보면 웨이터의 법칙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한 손님에게 와인을 쏟았다. 웨이터가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못하

고 있을 때 웃을 버린 손님이 불같이 화를 냈다. "눈이 빼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의류 업계의 거물이었는데, 실수한 웨이터를 대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 IT기업 대표인 데이브 굴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가 업무 차 만난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아

침에 바빠서 사위를 못 했는데 잘못네요.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실수한 웨이터를 웃음으로 용서하는 걸 보고는 데이브 굴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열 길 목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처럼 사람의 품격을 제대로 알기란 쉽지 않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품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품격이 필요한데 품격은 사람의 됴됨이와 기본 바탕을 지닌 성품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다. 그러나 신선하지 못한 향기가 있듯 사람의 마음도 밝지 못하면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가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인지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이다. 이는 믿을 것이 없

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노라면 누군가에게 자기의 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때가 문제다. 자기의 등(약점)을 보게 되는 상대가 믿음만한 자가 아니라면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지도자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 사법적인 리스크로 흥역을 치르고 있다. 실세였을 때 한 패(?)였던 이들의 반격으로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단어가 배신(背信)이다. 믿었는데 곤경에 처하니 전혀 기댈 언덕이 되지 못한다며 서로를 향해 막장의 사대질을 해댄다.

쓰면 뵈고 달던 삼키는 세상에 사는 이들이다 보니 그러면 그렇지 하는 근육이 생겨 새삼스레 실망할 것도 없기는 하나

이처럼 품격이 결여된 이들이 지도자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도 한심스러워 손웃음을 삼키게 된다.

사람은 분명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형상을 지닌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자라면서 사람이 되어가기도 한다. '언제 사람이 될래?'라거나 '사람이 돼라!'는 말이 흔히 오가는 것을 보면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형상에 사람의 바탕인 품격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흙으로 형체를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한다. 따라서 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까지 닮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품격이다. 즉 사람다움이

세상에서는 사람다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울지라도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와 그 공동체에서는 사람다운 품격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성(人性)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을 보며 '내 탓이오!'를 외치며 자각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이해부득의 고발이다. 사랑이 막힐지라도 위(하늘)는 열려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다. 알팍한 장난으로도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 교회요 성도다. 최소한 교회와 성도를 보며 말세라고 평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품격이다. 품격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닮음이기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슈퍼볼에 등장 첫 복음광고에 엮일린 시선, 30초 광고에 89억원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에 첫 기독교 복음광고가 선보였다. 올해 대회는 12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대결로 치러졌다.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더 서번트 재단'(The Servant Foundation)은 올해 미국프로축구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에 '히 겿츠 어스(He Gets Us)'라는 기독교 캠페인 광고가 집행됐다. 전·후반전에 각각 30초, 60초짜리 광고가 나왔고, 존중 친절 사랑 등 기독교 가치가 담겨졌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하는 광고비용에 쏠렸다. 이 단체가 이번 광고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광고 전문지인 애드에이지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슈퍼볼 30초 광고 단가는 700만 달러(약 89억원)에 육박한다. 1초에 3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에도 슈퍼볼 광고는 3개월 전에 매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 광고 각축전이 종교 광고가 등장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복음광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더 서번트 재단은 미 중남부 오랄라호마주 연합감리교재단(United Methodist Foundation)이 운영하는 모금 재단이다. 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익명의 여러 기부자로부터 1억 달러(약 1260억원)를 지원받아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신다' 정도로 풀이되는 '히 겿츠 어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 광고는 유튜브와 옥외광고 등 뉴스 조희수 65억회를 돌파했다. 어머니 마한 돈을 퍼부는 복음광고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효과적인 미디어 전도라는 호평과 함께 "그 비용으로 고아를 도울 수도 있을 텐데"라는 비판도 있다.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 복음전도단체인 '복음의 전환' 고정민 대표는 "감사한 일이다. 10억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광고는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면서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이 광고를 하는 가운데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임성빈 전 장신대 총장은 "(슈퍼볼의) 높은 시청률이 효과적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단인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수많은 자극적인 광고 가운데 잠깐 끼어든건데 '과연 기독교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효과적일까'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나 구호단체처럼 기독교 복음 메시지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지진 고아 속출... 263명 가족과 연락 안 돼

시리아 북부 알레포 주의 작은 마을 잔다리스에서 지진 발생 42시간 만에 구조된 타리크 하이다르(3)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큰 수술을 끝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이다르 곁을 지키는 부모와 형제는 없다. 모두 이번 지진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이다



르를 돌보고 있는 간호사 말렉 카시다는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에 "구조대가 하이다르의 아버지와 형제 두 명을 먼저 끌어냈지만 모두 사망했고, 어머니와 또 다른 형제도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튀르키예 가족사회복지부는 지난 10일 무니진 건물에서 목숨을 구한 어린이 263명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 16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1명은 치료 후 관련 부서로 이송돼 시설 보호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입양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입양이 폭력과 착취를 부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12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긴급소통 전문가 조 잉글리시는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비상사태 직후에는 입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부모 및 보호자와 분리된 아이들을 빠르게 구별하는 것"이라며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보호자와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잉글리시는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지진으로 정말로 많은 어린이가 부모나 보호자를 잃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이러한 종류의 재난에서는 실랑이가 된 어린이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된 아이들은 인신매매나 성폭력을 포함한 착취·학대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157시간 만에 임신부 생환... 기적은 계속된다

지진 발생 1주일을 맞는 튀르키예에서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났지만 기적 같은 생존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강진 최대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하타이주(州)에서 임신부가 157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12일 튀르키예에 관영 TRT가 보도했다. 방송은 어린 소녀가 150시간만에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됐으며 35세 남성은 149시간 만에, 생후 7개월된 아기도 140시간 만에 생환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가지안테프주 이슬라히예에선 3세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132시간 만에 구조됐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구조대원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남부 카라만마라슈 엘비스탄에서는 20대 여성이 매물 132시간 만에, 가지안테프 누르다오예선 일가족 다섯 명이 한꺼번에 구조돼 감동을 줬다. 튀르키예 안타키아 지역에서 탐색·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도 11일 생존자 3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지난 9일 구조활동을 시작한 우리 구호대는 사흘 동안 모두 8명을 구했다. 외교부는 "우리 구호대는 현지시간 11일 낮 튀르키예 구조팀과 공동으로 65세 여성을 구조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17세 남성 1명과 51세 여성 1명을 구조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저녁 차례로 구조된 2명은 모자 관계로 같은 건물에서 발견됐다. 아들인 17세 남성은 구조 당시 하반신이 잔해에 깔린 채로 의식이 없었고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군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시행해 병원으로 옮겼다. 유엔 공동조정센터는 지진 발생 72시간(인명구조의 골든타임) 이후 구조에 성공



한 우리 사례를 SNS로 특별 홍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수습·재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끊임없이 튀르키예 측과 소통하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재건 과정에서 여러 지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움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 구호대는 오는 17일까지 구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3000명을 넘었다. AP통신은 튀르키예 당국과 시리아에서 구조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단체 '하얀 헬멧' 발표를 종합해 사망자 수가 3만3179명으로 집계됐으며, 부상자도 9만26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美 경제 '무착륙' 시나리오 부상 '연료 떨어지면 큰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난해 연쇄적인 금리 인상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서였다. 물가가 잡히면 소비가 줄고,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은 일차리 감축과 임금 동결에 나서기 마련이다.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올해를 앞두고 시장이 예상한 관건은 충분한 회복 역량을 가진 소프트랜딩(연착륙)이나, 성장동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는 하드랜딩(경착륙)이었다. 그런데 현실의 미국 경제는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가 잡히는데도 일자리는 더 높고, 임금 인상을 마저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뉴욕 금융가의 주요 경제분석가 사이에 올해 미 경제가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제3의 형태, 즉 '무착륙(No Landing)'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불황 확률을 35%에서 25%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물가 인상률 3%, 실업률 4%, 경제성장률 2%의 예측치도 내놨다. 최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신규 일자리는 51만 7000여개로 시장 전망치를 3배나 웃돌았으며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였다. 바클레이즈 투자은행의 마크 지안노니 미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열된 고용시장이 진정돼 간다는 신호가 전혀 없어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금리 인상은 노동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경제의 이런 무착륙 상태에 대해 "비행기가 고도를 더 높일수록 연료는 더 소모되는 것이고, 아예 연료가 바닥날 확률도 높아지기 마련"이라고 언급했다. 무착륙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WSJ은 "무착륙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 정반대로 그만큰 위기를 맞게 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연준은 긴축 정책이 현실 경제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美 외교위원장 "대중 기술수출 중단" ... 반중감정 악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중국의 정찰풍선에 자국산 부품이 들어 있었다며 수출통제 조치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미군은 미 영공을 진입한 또 다른 고고도 비행물체를 즉각 격추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정찰풍선 사건으로 커



진 반중 감정이 미국의 압박 조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 "놀랍게도 풍선 잔해를 회수했을 때 영어가 써진 미국산 부품이 있었다. 중국에서 온 정찰풍선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장착된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위 위원장으로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중국이 첨단 무기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술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콜 위원장은 "상무부와 국방부의 엔티티 리스트(수출통제 명단)를 일치시켜야 하고, 안보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결국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회사별로 (제재를) 하지만 이를 부분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맥콜 위원장은 "정찰풍선이 움직이는 궤적을 봤을 때, 이것이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매우 분명했다. 미국의 주요 핵 시설 3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발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만에서의 잠재적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ABC뉴스 '디스 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국이고, 우리는 그들과 냉전을 벌일 수 없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 수출통제와 개별 기업 제재 등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하고, 또 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또 다른 고고도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지난 4일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이후 3번째다.

미·중 '정찰풍선 갈등' 에도 글로벌 기업 CEO 줄줄이 중국행

지난해 말 워드 코로나로 전환하며 일상을 재개한 중국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진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찰풍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고 미 정부의 대중 정책도 강경해지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팀 록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엘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 겸 CEO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기업 다임러그룹의 올라 쉐레니 우스 회장도 곧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과 하안에서 개최되는 보아오포럼 등을 계기로 많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3년 코로나 봉쇄로 하지 못했던 현지 법인 점검, 중국 정부 관리 및 파트너사와의 면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재개방으로 얻게 될 사업 기회를 얼마나 원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군이 지난 4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뒤 미 정부와 의회가 대중 강경책을 쏟아내고 이에 따르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공업 생산국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대중 경제 법안에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기업 활동과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VII. 기록론 (Christology)

(소요리 문답 2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位)에 양성(兩性)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 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시다."

기록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다.

성경은 총 주제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동시에 인간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비참한 존재이다. 인간의 비참함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준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르쳐준다.

딤후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성경이다.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다. 바울은 구약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A.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이다.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에 "떠오른다" 말은 70인경에 "아나텔레이 (ανατέλει)" 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78의 "돋는 해" "아나톨레 (ανατολή)" 와 동일하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찬송 가운데 "떠오르는 해 (돋는해)"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한다. 물론 의로운 해 (태양)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한다.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이 예언이 "신약 계시는 구약의 계시보다 더욱 밝은 것을 의미한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리스도를 그림자, 모형, 그리고 예언으로 전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 계시하기 때문이다.

눅 1:78, "돋는 해가 위로부터" (Sunrise from on high / ανατολή ἐξ ὐψους), 이것은 말 4:2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의미이다.

칼빈은 태양이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큰 밝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밝게 계시되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언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되었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

칼빈은 기록고 강요에서 (특별히 Inst. 2.9.) 신구약 성경이 메시아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통일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구약의 동일한 주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B.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1.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적 (official) 명칭이다. 신약의 헬라어는 "그리스도"이며,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다. "메시

야, 어떤 왕이나 관료 (삼하 7:14; 시 89:27), 그리고 경건한 진리의 사람 (창 6:2; 시 73:15)을 지칭한다.

신약에서는 이 말의 용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 (마 11:27; 14:28-33) 하며, 예수님의 사명과 메시아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마 24:36; 막 13:32).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태하여 탄생하심도 의미한다.

5. 주

구약에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상당히 폭넓게 주인, 혹은 존경하는 선생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 후에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삼관하시 주님으로 사용한다.

신약의 "주"는 구약의 "여호와"의 신약의 번역이며,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C. 예수님께서 한 인격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의 두 본성을 가지신다 (two natures in one person).

1.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른 신앙

창조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셨다." (the very same nature of the Father; begotten, not made).

성자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심 (begotten of the Father before all ages)" 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타난 "독생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신 분이시며, 니케아 신조는 인간의 언어로서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었기에 이러한 표현을 했다. 단지 그리스도의 영원성 (성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과 동시에 성부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임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독생자의 "영원히 나심"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추측하지 말고 성경에 표현하는 대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아버지로부터 나신" 삼위 가운데 제 2위 되신 하나님이다. 니케아 신경은 아리우스를 비판하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단어 "호모우시우스" (homoousios/ same in essence, 동질본질) 단어를 쓴다. 그러나 아리우스이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한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다 (히 1:1-3; 4:14; 5:8).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 (시 82:6)라는 의미가 아니며, 혹은 신자들 가운데 "말어들"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 2위 (2nd Person of the Holy Trinity)라는 말이며, 성부와 구별된 위격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되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2) 하나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

이사야 9:6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롬 9:5,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신으로 하면" (τὸ κατὰ σάρκα)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ός)는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딤후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후손 없이도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다.

3) 하나님의 본체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에서 "본체"라는 말은 μορφή/ form, "형상" 혹은 "형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외모만을 의미하는 형식이 아니라, 실체가 충만한 형식이다. 이 형식의 내적인 실체는 곧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4) 주

신약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고전 2:8).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다.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모두 "주" (κύριος)로 번역되었다.

5) 아버지와 동일하심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했을 때 (요 14:8), 예수님은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또 "나의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마 28:18), 무소부재 (無所不在, omnipresent)하시며 (요 2:24-25), 사죄하는 권세가 있다 (막 2:5-12).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요 1:3; 골 1:16-17)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요 4:14-15; 5:21), 영원불변하시며 (요 1:1; 히 13:8).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준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6)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야"라는 말은 기름부음을 받은자라는 의미이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말은 구별된 직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2. 예수

원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였으나, 포로후에 예수이로 바뀌었다. 뜻은 "구원자" 이다 (마 1:21).

3. 인자 (the Son of Man)

구약에는 단 7:13; 시 8:4; 그리고 에스겔서에 많이 나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약 40회 사용하셨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평칭을 거의 사용하지는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타이틀로 "인자"를 사용하신 경우는 자신의 인성,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신성, 특별히 영원 전부터 존재하심과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4.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마 16:15-16,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니케아 공의회 (The Council of Nicaea)가 325년 6월 19일 니케아(Nicaea)에서 열렸다.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사상 첫 교회 연합의 공회의이다. 니케아 신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었고, 성부와 동일하신 본질을 지니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니케아 신경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지니시고,

단은 "호모우시우스" (homoiousios/similar, 유사본질)를 쓴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이지만 아버지의 피조물이며, 성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아니하다는 주장을 비판하여, 니케아 공의회는 정통적이며, 성경적인 기록들을 든든히 세웠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헬라어 알파벳 하나인 "이오타 (i)의 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되심과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되심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알파벳이 된다 (동일과 유사의 차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타이틀을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것은 메시아의 직위와 사역의 성격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말이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소망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2)

* 교리 1의 적용: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1) 비 회심자의 필연적 죽음

조만간 여러분은 반드시 회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 당할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회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진리이다. 에스겔이 말해주는 것처럼 나는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다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3:8). 이 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설교해야 하며,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옥을 체험하는 것보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쉽다. 만일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이 진리를 듣고 생각한다면 지옥이 그렇게 가득 차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회심의 좁은 문이나 거룩한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험을 생생하게 느끼며 각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 듣거나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어리석음과 육적인 자기 사랑 때문이요,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복이 있을 것인가!

* 회심하지 않는 지루한 상태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 이토록 강력한 진리에 의해서도 찢림을 받지 못하는 죄인들의 마음, 무엇이 그 마음의 문제인가? 여러분은 머지않아 회심과 정죄,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눈으로 본 것처럼 분명하게 예고할 수 있다. 은혜 아니면 지옥이 곧 이 상태를 끝장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삶을 살았던가?"

* 악인과 회심하지 않은 자는 같은 뜻이다.

2) 회심 문제의 근원

인간이 만들어진 복된 상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소개하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상태를 얻기에 적합한 수단을 주셨다. 이런 수단은 원리적으로 두 가지이었다. 첫째는 인간의 정서의 바른 경향과 성향이다. 둘째는 인간의 삶과 행동의 바른 질서이다.

*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의 성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첫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향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만드셨다. 즉 인간에게 현재의 상태에 적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이끄리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든 사용자로서도 하셨다. 두 번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완전한 법을 주셨다. 이런 법을 고의적으로 어

김으로써 인간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슬러 낮고 육적인 것들에 고정시켰다.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의 성향과 경향에 맞게끔 되어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육적 자아를 위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추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 피조물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본성, 즉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욥 14:4).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자신의 자비, 즉 우리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사랑하며,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한다. 육적인 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치료를 거절하도록 설득하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제공해주신 치료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며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을 때 변명을 늘어놓도록 한다.

3)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이로써 여러분은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형상을 취해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본성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세로부터 건져주셨다. 이렇게 하여 성부와 중보자는 사람을 위해 새로운 법과 언약을 만드신다.

* 성자의 죽으심을 무익하게 만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법 곧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회심한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와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이것은 왕이 반역한 무리들에게 내린 사면령과 같은 것이다. 사면을 받게 된 반역자들은 행복하고 나와서 앞으로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다. 성부의 사역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를 제공해 주시며,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의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며, 약속 곧 은혜의 법을 주시며, 은혜에 입각해서 구세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며, 자신의 죽으심의 유익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며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인지시며, 평범한 복음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조명을 주며 감동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회심하게 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신다. 성자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 성령은 이런 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도장을 찍는다. 사도들은 이것을 기록한다. 복음 설교자들은 이것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복종하도록 설득한다. 성령은 그들의 설교를 효과 있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하신다.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한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세속적인 곳에서부터 하늘로 바꾸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십만분의 일의 확률

일년 전에 딸아이가 귀도 안 뚫은 나에게 작은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다. 그 참에 귀를 뚫을까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목걸이만 하고 학교를 갔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목에 걸려 있어야 할 목걸이가 안 보였다. 내가 머물던 장소의 바닥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급하게 집을 나오느라 제대로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아서 집에 떨어졌나 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와서 이 곳 저 곳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싶어서 학교 직원에게 연락했다니 금세 연락이 왔다.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위 놓았다는 것이다. 오래 전에 50살 생일 기념으로 아이들이 사주었던 목걸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세 아이들 다 공부하던 때여서 여유도 없었는데 마음을 모아서 준 선물을 한 의원에서 치료받느라고 풀었다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딸이 사준 것을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는데 직원이 찾아 주어서 정말 고맙았다. 그 이후로는 그 목걸이를 가끔씩 할 때 마다 고리가 잘 잡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다. 목걸이 잠금장치가 느슨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였다.

몇 주 전 주일에 교회를 가면서 그 목걸이를 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보니 목걸이가 없었다. 코트를 벗으니가 안쪽에서 주르르 목걸이가 흘러 내리는데 펜던트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줄만 떨어졌다. 도대체 이 넓은 교회 어디서 목걸이 알맹이를 찾을 수 있을지, 질철한 엄마가 또 선물을 잃어버린 것이 미안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려고 했다. "어차피 이 땅을 떠나는 날 다 두고 갈 물건인데 예배에 집중해야지"라고 목걸이가 떨어져 있을 곳을 상상하는 마음을 접고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파킹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하나님, 이 넓은 교회에서 목걸이 펜던트를 찾는다는 것은 100,000분의 일의 확률이지요?" 말을 마치고 내 차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대어섯 걸음을 떼었을까? 길 위에 반짝거리는 작은 것이 보였다. 설마하고 가보니까 목걸이에서 흘러 내린 펜던트였다. 갑자기 눈물이 핑 고였다. 잃은 것을 찾은 반가운 마음보다는 이렇게 곧바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 때문이었다. "야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십만분의 일의 확률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네가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최근에 말은 일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계속 마음이 힘들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경 때문이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동동거리고 다니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네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저를 붙잡아 주주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쉴 때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 30:15).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므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앓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신다고 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신다고 하시니 시련 기차처럼 정말 이 깨달음이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다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시편 139).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한다면 두려워 할 일이 무엇이며 근심할 일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늘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 입어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두 번이나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걸이를 통해 확실하게 실물교육을 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십만분의 일보다 더한 확률도 이루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본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창섭 목사 (세계선교교회)

손해보는 선택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를 선택한다. 세수를 먼저 할지 양치를 먼저 할지 선택하고, 무슨 옷을 입

고 나갈지 선택한다. 준비를 끝내고 운전석에 앉으면 이제는 어떤 길을 타야 할지 선택한다.

“프리웨이를 타면 막힐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도 로컬

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프리웨이가 낫지”하고 고민한다. 막상 이 길을 타든 저 길을 타든 걸리는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런 선택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중차대한 선택도 많이 있다. 한국에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미국에서 살아야 할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고, 회사를 다녀야 할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할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도 했다.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약 30년 전에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남자 주인공이 선택의 순간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결심했어’라고 말하는 각각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그래 결심했어’가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인생의 선택은 어렵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로 선택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예수에 선택했다고 하여 신앙생활에 선택의 순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택해야 할 가짓수가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선택하고, 기껏해야 이것이 선한 행인가 아닌가 정도가 선택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일인가 아닌가’ 또는 ‘이 일을 예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아닌가’ 하는 등의 선택의 기준이 덧붙여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자’이다. 내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 보다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자. 그런 선택이 주님께에서 기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해야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가 움켜쥐려고만 한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마저 주셨는데,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조금씩 손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의 손해 보는 선택으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wmclakim@gmail.com



KCBMC 서부 캐나다 연합회 소속 5개 지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3 KCBMC 서부 캐나다 연합회 신년하례식 성료

사역목표 정하고 새로운 도약다짐

지난 1월 21일 (토) 오전 7시 30분, Executive Plaza Hotel에서 서부 캐나다 연합회 소속 5개 지회 65명의 회원이 모여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한기덕 총연회장, 풀현 사무총장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소중교회)와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원 전총장이자 밴쿠버 CBMC 고문이신 정태기 목사의 축하 메시지 영상 시청 후에 한소망 교회 소성범 목사가 ‘그리스도와 함께(갈2:20)’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2023년 새로 임명된 연합회장과 5개 지회 지회장 임명식을 거행한 후, 역대 회장단과 리더십들이 함께 안수하며 합

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전영하 신임 연합회장의 2023 사역계획 발표시간을 가졌다.

CBMC 정체성의 확립, Life on life 사역, 핵심 리더를 세우고 양육, VIP 전도초청 만찬, 차세대 e-CBMC 창립을 중점 사역 목표로 정하고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특히 2022년에 새로 등록된 5개지회 신임회원 15명에게 배지 수여식을 거행하고 함께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처치클리닉 신년세미나 개최

“올바른 설교위해 학습하며 배워가야”

‘교회 함께 가자’ 처치클리닉(대표 손기성 목사)에서는 지난 13일(월) 오전 10시 ‘설교의 정석...일년 설교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물댄동산교회(이영희 목사/한상우 목사)에서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는 리버티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설교학 교수로 봉직했던 정현 박사가 초청돼 “설교의 형식은 변하고 다양화 되어 갔지만 설교의 기본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기에 설교자는 대상이 누가 되든지 올바른 설교를 위해 학습하며 배워

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미나를 인도했다.

처치클리닉은 워싱턴DC지역에서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수 있도록 도우며,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목회자들과 지역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처치클리닉에 관한 것은 웹사이트:churchclinic.net에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것은 703-334-7602나 카카오톡 ID: Churchclinic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처치클리닉)



정현 교수가 신년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모습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subscription rates in various regions including USA, Canada, and Korea/Asia.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Mongomae, and others.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초대교회, 말씀집회 및 학부모 세미나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2월 17일(금)~19일(주일)까지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집회를 갖는다. 17일(금) 오후 8시 '빛의 자녀들처럼'(엡 5:8-9), 18일(토) BLESSED 컨퍼런스 (막6:34, 요2:9-10), 19일(주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시라'(행 2:42-47)의 제목으로 진행된다. 한편 22일(수) 오후 8시에는 어린이, 청소년 부모를 위한 사춘기세미나 특강이 이진아 전도사(남가주 다음세대지킴이 대표)를 강사로 열린다.

▲문의: 집회 201-767-0400(뉴욕초대교회), 세미나 201-245-2557(Karen 오 전도사)

뉴욕센터교회, 음악시리즈콘서트(Music Series Concert)

뉴욕센터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음악시리즈 첫 번째 콘서트가 2월 26일(주일) 오후 1시에 열린다. 본 콘서트에는 저명한 올랜주자 Gordon Turk가 초청되어 올겐 리사이틀을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문의: 516-387-9940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생명나눔컨퍼런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는 2월 24일(금)~26일(주일)까지 생명나눔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강사는 최종상 선교사(안노스윙턴교회 대표)이며 강의를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컨퍼런스 부스나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강의(9시~11시30분), 오후 현장실습 및 기도회(1시~3시)와 전교인 대상 저녁 부흥회가 오후 7시 30분에 있으며 주일 영예예배는 오전 10시 다목적실에서 드린다.

▲문의: 703-815-1200

2023년 처치클리닉 신년세미나 '설교의 정석'

'교회 함께 가자' 처치클리닉(대표 손기성 목사)에서는 2023년 신년을 맞아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물댄동산교회(이영희 목사, 한상우 목사)에서 대면 세미나를 진행한다. 주제는 '설교의 정석-일년 설교 이렇게 준비하자이다. 강사는 리버티신학대학에서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던 정현 박사이다. 물댄동산교회 주소는 9461 Silver Ct. Fairfax, VA 22031이다. 접수문의는 help@churchclinic.net 나 카카오톡 churchclinic 으로 하면 된다.

▲문의: 703-334-7602

필그림선교교회, SUMMER CAMP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2023년 PSBC,PSBC+Bible Summer Camp가 오는 7월 5일~ 8월 11일(월~금)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K~ 8th Grade이며 영어, 수학, Art, Music, Science, Field trip 등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 www.njpmc.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201-461-1225

퀸즈한인교회, SUMMER SCHOOL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 '2023 Summer School'이 7월 5일 ~ 8월 11일(6주) 월~금, 오전 9시 ~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K-8th Grade(2023~24학년도 기준, 2018년 출생 포함)이며 2월28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등록 및 Van신청). 또한 After School Care(3-6pm) 신청도 가능(Fee 별도)하다. 한편 여름학교 교사, TA(만 15세 이상) 및 밴 운전자(유급) 모집한다.

▲문의: 718-672-1150

뉴욕장로교회, 'Purity' 리더 훈련 컨퍼런스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다음세대 성경적 성교육 'Purity' 리더 훈련 컨퍼런스를 Purity 저자 이진아 전도사를 강사로 초청해 2월 25(토) 오전 9시~오후 5시, 2월 26일(주일) 오후 3시~오후 7시에 양일간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4-12학년 자녀에게 영어로 성경적 성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모 및 교사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10명, 신청비 \$50이다.

▲문의: 718-706-0100



제시유 교수와 앤드류 김 교수가 함께 색소폰과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제시유 교수와 앤드류 김 교수 초청 듀오 콘서트 아마존선교 지원 음악회로 열려, 색소폰과 첼로의 멋진 화음

제시유 교수와 앤드류 김 교수 초청 듀오 콘서트가 아마존 선교 지원 음악회로 2월 12일(주일) 오후 5시 뉴욕새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열렸다. 송정훈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제시유 교수의 색소폰과 앤드류 김 교수의 첼로의 멋진 화음에 참가자들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으며, 최선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반주가 감동을 더했다. 뉴욕미션콰이어 대표 윤혜경, 음악감독 제시유와 차정호 색소포니스트가 찬조출연을 했다. 제시유 교수는 수많은 집회와 음악회에서 색

소폰과 클라리넷과 플루트 등 많은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여 충격을 준 천재 연주인이며, 앤드류 김 교수는 많은 이력과 경력과 더불어 선교지를 돌며 연주를 하여 "선교 첼리스트"라고 불린다. 2005년부터 아마존을 돌며 원주민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첼로를 연주했으며, 2013년부터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으로 사역이 확대됐다. 김 교수는 유명 장인이 만든 1699년산 첼로를 사용하여 연주하고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지진피해를 입은 현지 건물들(이재홍 목사 제공)

뉴욕교협, 목사회 등 튀르키예 지진재해 성금 모금 앞장서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3만7천(13일 통계) 명의 사망자들이 나온 가운데 미주의 각 교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재해성금을 모으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회원 교회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과 사회에 구호품과 비상 식료품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호소했다.

뉴욕교협을 통해 성금을 보내는 방법은 Pay to에 "C.K.C."로 기입하고 메모란 "튀르키예 지진재해성금"으로 적어 교협(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Y,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으로 보내면 된다. 1차 모금기간은 2월 9일(목)부터 28일(화)까지이며, 문의는 교협(718-279-1414)이나 총무(845-848-2013)에

계 하면 된다. 뉴욕목사회(회장 김홍석 목사)도 지난해 성지순례에 다녀온 지역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자 기금모금에 나섰다. 뉴욕목사회는 연락을 주면 퀸즈지역 내에서는 목사회 임원들이 직접 픽업한다고 알렸다. 회장 김홍석 목사(646-287-7169), 부회장 정관호 목사(917-750-8174), 총무 박희근 목사(917-254-0887), 회계 유상용 목사(718-219-9914) 등이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심대식 목사)도 튀르키예 재난지원 모금위원장으로 손기성 목사를 임명하고 모금에 나섰다. 모금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Pay to order에 "CKCGW" 그리고 메모란에 "튀르키예 지원"이라고 적은 후에, 우편(PO Box 1942 Annandale, VA 22003)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손기성 목사(703-627-4170)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아멘넷)



예배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예장(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이상훈 강도사 인허예배

"칼빈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 신앙의 바른 사역자의 삶 살 것"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노회장 김종태 목사)는 이상훈 강도사 인허예배를 2월 12일(주일) 오후 4시에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드렸다. 예배는 김종태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부노회장 권영길 목사가 대표기도 순서를 통해 이상훈 강도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앞으로의 사역에서 큰 일꾼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정관호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베드로전서 5:1-4)"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어려운 목회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말

씀과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무엇보다도 칼빈주의 신학의 바탕위에 개혁주의 신앙관을 바로 세우는 바른 사역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이어 노회장의 인도로 서약과 인허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어 뉴욕총신대학의 차경희와 김호섭 전도사의 특송을 했으며, 이상훈 강도사는 인사순서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리고, 신학의 길과 목회자의 길로 인도 해 준 정익수 총장 및 교수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총회 전권위원장 정익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어둠에서 빛을 갈망하는 입양인"

월드허그파운데이션, 2023 설 축하 행사

월드허그파운데이션(WHF 회장 안토니오 리베라)가 주최한 '2023년 설 축하 행사'가 2월 10일(금) 오후 6시 한인봉사센터(KCS)에서 열렸다.

회장 안토니오 리베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섬기는 이들의 질을 향상시켜 선도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월드허그재단과 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명승 이사장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앞으로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행복한 날로 기억되는 날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입양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민권이 없어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입양인을 위해 모두 하나 되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서미라(월드허그재단 홍보대사), 이효찬씨의 사회로 열린 행사는 Korean Fever의 오프닝 공연, 국기단 입장식, 김영환(테니)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불렀으며 전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가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뉴욕을 기반으로 한 주류 정치인들과 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김의환 영사(뉴욕총영사관)는 "입양인들이 생모를 찾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맘이 아팠다"며 "입양인을 위해 섬기는 월드허그재단에 한국동포사회에서 한인입양인들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라고 저도 이 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협회장 이준성 목사는 축사를 통해 "월드허그재단은 입양인들 뿐만 아니라 팬더믹 기간에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적극적으로 도와 한인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하며 "월드허그재단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헌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하원의원 에드워드 김스 외 정치인들이 봉사자 서예화, 크리스틴 성과 월드허그재단에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월드허그재단은 푸드박스를 제공한 Ua3 Don Hong 대표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최재복 상임이사의 내빈소개가 있었으며, 월드허그재단의 활동 동영상 상영 한 뒤, 축하공연으로 Korean Fever의 가야금 연주와 United Taekwondo Center의 태권도 시범 등을 공연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송인규 목사(뉴욕한인 제일교회)의 만찬기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월드허그재단 2023년 설 축하 행사 후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2월 정기모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2월 정기모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뉴저지한인은퇴목사회 2월 정기모임이 2월 9일(목) 오전 11시 뉴저지영광장로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열렸다. 2월 정기모임 예배는 인도 회장 하사무엘 목사, 기도 총무 조영길 목사, 찬양대 찬양(지휘 전항 목사), 설교 이용걸 목사, 광고 서기 김선량 목사, 축도 이용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용걸 목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시편 18:1)"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나이가 든 것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모자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된다."고 전했다. 2월 모임은 디모데목회자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에서 식사와 각종 선물을 준비하여 은퇴 목자들 부부들을 섬겼다. 식사후에는 전도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

(2면에서 계속)

한국에서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주로 유교와 대립했던 반면, 개신교 선교사들은 사머니즘과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는 한국에서 무속신앙을 처음 접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당을 '우상'이라고 불렀다. 한편 동료 미국 선교사 헨리 G. 아펜젤러는 무속신앙은 단지 미신을 믿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영 안에서 기도하다

1907년 평양 대부흥기는 이러한 선교사들이 무속신앙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다. 1897년부터 1906년까지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은 지배권을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으로 떠들썩한 정치 상황을 맞닥뜨렸다. 러일전쟁(1904~1905)은 한국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평양 부흥은 이런 아픈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국적인 운동이 진행

되는 동안 대규모 고백과 회개, 구마와 치유, 격렬한 단체 기도 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자들은 큰 소리로 우는 경우가 많았다. "모든 청중들이 함께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합성과 영성의 조화되고 거부할 수 없는 기도가 쏟아져나와 감동받은 이들이 함께 이루어진 모습이였다" 라고 미국 선교사 윌리엄 블레어는 말했다. 이러한 부흥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의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때 구마나 치유 사역에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일부 선교사들이 부흥회를 통해 태도를 바꿨다고 역사학자 옥성득이 기록했다. 많은 선교사들이 중단주의적 견해를 버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증명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영적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개신교가 한국에서 정착하는 데 무속신앙의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국 선교사 찰스 A 클라크는 "1900년 전처럼 사탄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립하여 영적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OC교계단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지진의 희생자가 3만천명을 넘었다. 이에 대하여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과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그리고 OC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등 OC교계단체들이 연합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사랑의 손길을 전달한다. 이를 위한 튀르키예 지진구호성금 긴급 특별 기자회견이 13일(월) 오후 2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튀르키예 긴급 구호 및 재난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지진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지역의 참사가 담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이미 오렌지카운티 단체들이 구

호물품을 모으고 있고 피해지역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구호품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심상은 목사는 “이번에 모아진 성금은 100% 현지에 전달하게 되며

운영비는 성금에서 사용하는 대신 스태프 관계자들이 사비로 각출해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OC교협 증경회장 김기동 목사는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도가 있기를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

해 OC지역의 모든 교계단체가 연합할수 있음이 감사하다”며 “이번에 전달되어지는 우리들의 정성이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게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심상은 목사는 “튀르키예는 6.25 한국전쟁 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가이다. 70년전 그들이 우리를 도운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도울 때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지켜줬기에 현재 우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때 받았던 사랑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심 목사는 “그들이 무슬림의 여부를 떠나 인류애로 형제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 교계가 연합하여 모금운동을 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의: (714)722-4805, (714)873-9164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상담학과 주최 상담 세미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는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주최로 오는 24일(금) 오후 4시 기획 상담세미나 ‘용서’를 개최한다. 강사는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디렉터인 최민수 교수가 맡았다. 미주장신대 2층 멀티룸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ID:660 5683 3795)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이며 세미나 줌 아이디: 660 5683 3795 (Zoom)이다.

▲ 문의: (562)926-1023

판타스틱 러브 찬양 공연

감사한교회(담임 구봉주 목사)는 CCM 여성 그룹 ‘러브’와 가수 김예진씨의 공연을 17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714)521-0991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 창립 34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샌디에고 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 34주년 기념 창립 및 임직 감사예배가 19일(주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858)278-3210

토랜스조은교회 부흥회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부흥회를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24일(금) 오후 7시30분, 2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26일(주일) 각 예배시간

▲ 문의: (310)370-5500

소중교회 판타스틱러브 찬양집회

소중교회(담임 김기동 목사)는 판타스틱러브 찬양집회를 19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갖는다. 출연진은 러브, 예진아씨, 조효성 목사 등이다.

▲ 문의: (714)990-9191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 38주년 부흥성회에서 이원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세리토스선교교회 창립38주년 부흥성회 “여호와를 기다리라”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창립38주년 부흥성회가 ‘가장자리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10일(금)부터 12일(주일) 까지 개최됐다. 12일(주일) 오전 7시45분 오렐렐 목사 사회로 본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예배를 겸하여 열린 부흥성회 마지막 날 집회 1부 예배는 유진국 집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이원우 목사(칼빈대학교 교수)가 ‘여호와를 기다리라(사 40:27-31)’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원우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고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고 활기찼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신앙에 침체가 오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 가깝게 느끼는 신앙훈련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우리가운데 계시고 우리 삶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자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날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들에게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새 능력이 주어져서 모든 일들을 바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다름박달하여도 피곤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 함을 얻는 것이다. 모든 자유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 허덕이면서도 발버둥치는 인내의 힘 외로움과 실망에 빠진 타성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힘 나의 큰 아픔 통해 다른 이의 작은 아픔을 감싸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설명하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이원우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10일(금) 오후 7시30분에 열린 첫날 저녁 집회는 ‘아모스소개’, 11일(토) 오전 6시에 열린 둘째날 오전집회는 ‘호세아와 이사야 1’, 11일(토) 오후 6시에 열린 둘째날 오후집회는 ‘에스겔과 이사야2’라는 제목으로 이원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기쁜우리교회 창립 6주년 및 임직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왼쪽위 원안은 6주년기념케익을 자르는 모습

기쁜우리교회 창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은퇴 임직식

“함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기적”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창립 6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은퇴 임직식이 12일(주일) 오후 12시30분에 거행됐다. 김경진 목사는 “6년 동안 우리교회의 삶과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를 느낀다. 함께 한 세월들이 은혜였으며 기적이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다.”고 말했다. 김경진 목사 집례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서기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연합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공동체(잠 25: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은 집례자가 은퇴자 소개, 은퇴패 수여, 은퇴자를 위한 기도를 했으며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과 추대장로 추대 권서 추대식은 임직자 소개,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로 이어졌다. 이어 흥민성 집사가 특

송했으며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임직자와 성도들에게 권면, 스티브 위비 목사(글렌데일 장로교회 담임)가 축사했다. 이어 기념패와 기념품 수여시간이 있었으며 오승일 장로가 대표로 답사했다. 오승일 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 후에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송정명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임직받은자와 은퇴자들은 다음과 같다. △시무장로: 오승일, 이정욱, △시무안수집사: 김도진, △추대장로: 공대용, 김광일, 김종범, △추대권사: 신효신, 이정균, 장연진, 정상숙, 최덕순, △은퇴시무장로: 김원국, △은퇴시무권사: 유순익, 장미경, 최순정, 최재순
(박준호 기자)

달라스빛내리교회 선교부흥회

“믿는자들은 환대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전해야”

달라스빛내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 선교부흥회가 송민호 목사(토론토영락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지난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지금 다시 일어날 때입니다(엡 2:10)’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지윤수 목사 사회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5일(주일) 11시 예배는 송민호 목사가 ‘다시 일어나는 구속적 삶의 모습 3(엡 2:10, 히 13: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민호 목사는 “선교적교회는 선교를 더 많이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명지향적인 교회”라며 “선교적 교회는 온성으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믿음공동체”라 말하고 “구속적 삶의 목적은 성도와 성도사이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럽으로 믿는 자들은 환대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대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며 방문자, 난민, 유학생, 외국인, 노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환대적 삶을 나눌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와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속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환대적 삶을 살 때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공감을 갖고 접근할 때 가능하다”며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송민호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플라워마운드교회 선교헌신예배에서 장요셉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플라워마운드교회 선교헌신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고 실천하자”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는 선교헌신예배를 지난 5일(주일) 오전 11시 장요셉 목사(쿠바선교사, 빛과소금의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태원 안수집사가 대표기도 했으며 김경도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이날 장요셉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마 28: 19-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이민자의 삶은 무척 바쁘다. 바쁜 삶을 계속 반복하다보니 시간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월이 빨리 지나 간다”며 “어느 터닝포인트가 올 때 나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생기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질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며 그런 생각이 들 때 흥분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 질문하며 “한분 한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서게 되는 것”이라 강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배드리러 오는 신자들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먼저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양육해야 한다. 둘째 땅 끝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선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 축원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장 목사가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인도했으며 김경도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울신대 남가주 동문회가 용궁식당에서 열렸다

서울신학대학 남가주 동문회 신임회장 안신기 목사

서울신학대학 남가주 동문회 신년하례식과 총회가 지난 1월 31일(화)오전 11시에 용궁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새 회장에 안신기 목사, 부회장에 황의정 목사, 홍용표 목사, 안중기 목사를 선출하고, 총무에 주 신 목사,

서기 회계에 신용석 목사가 취임되었다. 동문회는 또 서울신학대학교에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고 식사와 함께 선배들의 덕담을 나누며 선물 전달 및 행운권추첨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달라스빛내리교회 선교부흥회에서 송민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

구호 사역 힘쓰는 광림교회

서울 광림교회(감독 김정석) 홈페이지와 유튜브 계정에는 12일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분51초 분량의 영상엔 지진으로 폐허가 돼 버린 튀르키예 도시들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슬픔에 빠진 이재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 중간에 등장한 이들은 안디옥개신교회를 섬기는 장성호·박희정 선교사 부부였다. 튀르키예 동남부 안타키아에 세워진 이 교회 역시 강진으로 처참히 무너진 상태다. 장 선교사

는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고, 박 선교사는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상엔 이런 자막도 등장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안디옥개신교회는 광림교회 가 현지에 있던 프랑코영사관 건물을 매입해 2000년 6월 봉헌한 교회다. 13일 광림교회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진 발생 직후 현지 대응팀을 꾸리고 장 선교사에게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는 등 구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석 감독을 비롯한 광림교회 관계자 20여명은 지진이 발생한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원래 계획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안타키아에서 튀르키예 참전용사 위로 행사를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국내선 운항이 전부 취소되면서 행사는 취소됐다. 이들은 공항에서 대책회의를 가진 뒤 심시일반 돈을 모아 장 선교사에게 전달 긴급 구호금 2만5000달러를 마련했다.

지난 11일 귀국한 김 감독은 이튿날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며 “당분간 그들을 위한 재해헌금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자”고 당부했다.

광림교회 일부 교역자는 튀르키예에 남아 현재도 구호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안타키아에 머물고 있는 권순정 광림교회 부목사는 국민일보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7일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며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곳마다 봉사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엔데믹 왔는데... 교회학교 “교사 인력난 어찌나”

팬데믹 기간 줄었던 교사 숫자, 회복 못한 교회학교 수두룩

서울 서초구의 A교회가 12일 주보에 낸 구인 광고다. 교회학교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났지만 교회학교 교사를 충원하지 못한 교회들이 적지 않다.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학생 충원과 함께 “교사 부족” 사태는 교회학교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비대면 기간 중 붓물처럼 쏟아진 각종 동영상 교육

콘텐츠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면서 “미디어 전문 교사 충원”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떠안았다.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김주용 목사)는 교회학교 교사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학기 중 봉사를 그만두는 교사의 빈 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확보 차원에서다. 교회학교 교감 정호연 집사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교사 1명당 학생 2-3명’만 배정해 교회교

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 수급 확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교회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다. 인천 예전중앙교회(박영래 목사) 중등부는 지난해 말까지 중등부 교사를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이 부서의 학생은 20명 수준이지만 교사는 3명뿐이라 교사 한 명당 학생 7명씩 맡아야 하는 셈이다. 교사 1인당 4-5명을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기대에 비하면 다소 벽간 상황이다. 젊은 교사 부족으로 교사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것도 문제다. 이 교회 중등부 전체 교사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중학교 1학년과 비교하면 30년 가까운 차이가 난다.

서울대방교회는 코로나가 퍼진 2020년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자 교사 수도 덩달아 줄었다. 하지만 교회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 수 회복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급이 여의치 않다. 임성준 교육전도사는 “올해 봉사할 교사 인원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족할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고 지난해 중순이 돼서야 간신히 충원했다”면서 “교사 부족으로 다음세대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 하고 있다는 미안함이 크다”고 토로했다.



시티워십 프로젝트는 도시회복 & 교회성장운동

그리스도인은 도시 안에서 역동적 대항문화를 세우야

기독교 문화선교단체 뉴미니스트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 압구정 앤드트리메타 공연장에서 뉴미니스트리 10주년 시티워십을 개최했다. 시티워십 프로젝트(City Worship Project)는 예배 운동(Urban Movement)으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동시에 드리는 예배이다. 그동안 서울 강남(순복음예수소방교회)

과 신촌(뉴라이프교회, 히브루스 카페), 대학로(플레이더씨어터), 홍대(H-stage), 신가포르 심밍(셀터발티스트처치), 싱가포르 파크레인(톤하우스)에서 시티워십이 열렸다. 이 운동을 함께 기획한 박진웅(뉴라이프침례교회, 뉴미니스트리 대표) 목사와 박범(보람교회, 뉴미니스트리 상임이사) 목사는

교회 생태계에 변화와 성장을 주는 교회 플랫폼을 연구하고 구축하고 있다. 박범 목사는 “도시 신학(Urban Theology)에 따르면 도시는 복음으로써 구축돼야 하며 문화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경이로움과 풍성함이 잘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도시 안에서 역동적 대항문화를 세우야 하며 도시 전체에 유익을 주는 헌신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티워십 프로젝트(City Worship Project)는 예배를 통해 ‘살롬’(평화)을 도시에 가져와 번영과 공공성이 회복되는 도시회복 운동, 교회성장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뉴미니스트리 10주년을 맞아 드려진 예배는 박범(보람교회)목사의 시편 100편 말씀의 선포를 시작으로 시티워십과 함께 드려졌다. 경배와 찬양은 뉴워십(손종수 전도사, 박사랑, 김재은, Su Wenxin, 메인 건반 양찬미, 악스 건반 지역환, 일렉 기타 강성민, 베이스 기타 이주환, 드럼 정서우), 유티와 이어(손종수 대표)의 “길을 만드시는 주”의 특송으로 마음의 감동을 주었다.



극동방송PK장학재단, 48명 장학금 전달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탈북민, 장애우, 선교사 자녀 등 우선 선발

극동방송PK장학재단(이사장 김요한 목사)의 제21차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7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채플홀에서 열렸다. 극동방송PK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장학생 선발 공개모집, 장학생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금은 사랑장학금 비전장학금으로 나뉘어 전달됐다. 48명에게 수여된 사랑장학금은 국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수여했다.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소외계층, 탈북민, 장애우, 선교사 자녀 등을 우선 선발했다. 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수여되는 비전장학금은 14명에

게 전달했다. 김요한 목사는 수여식에서 ‘다음 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하철 안에서 “각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건을 판매한 상인의 이야기를 인생에 비유한 김 목사는 학생들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다음 칸을 준비하고 계신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증자로 나선 이은수 학생은 “1994년 포항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 열심히 목회를 하던 아버지가 2009년 갑자기 간암으로 소천 하셨다. 출사모

가 된 어머니는 사회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보육교사를 하며 나를 키우셨다”면서 “대학에 합격했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며 대학 진학을 망설였다. 진학 여부를 놓고 기도하던 중 극동PK장학금을 알게 돼 장학재단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극동PK장학재단은 꿈과 비전을 품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국가와 사회,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독 인재로 양성하기 세운 공익법인이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어린 시절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중 칼 파우시 상사를 만나 배움과 유학의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세 양성을 위해 2010년 설립했다. 13년간 147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극동PK장학재단은 매년 2월과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 홍익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주립대학교
- 영여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 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 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수)	고흥 엘림수양관 (원장 김지선목사, 원목 함태영목사) 010-8653-1213
6(월) 오후	햇빛연예인선교회 (정빛빛 목사) 010-8014-3121
오후	교육세미나 주회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교육부 010-7291-0291
7(화) 오후	인천 송도사랑교회 (박용배 목사) (032) 832-8290
	주만 미국 Knapp Seymour University (총장 Tomas VrumPild)
	이사장 홍용표 박사 행정총장 심진구 박사 (Cell 1-213-590-9191)
8(수) 오전	웅산 은목교회 (이무형 목사) 010-3518-1685
	행정 서귀함 전도사010-3764-7517
8(수) 오후	광명 예수생명교회 (주중순 목사) 010-5514-4802
9(목) 오후	성인 중앙교회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10(금) 오후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11(토) 오후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13(월)~16(목)	진안군 임마누엘 냉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행정 부목사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6(목) 오후	오산리 최자실목사 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 부흥사단체 총연합회
	(대표총재 피종진목사 준비위원장 장사무엘목사) 010-7733-9106
17(금) 오후	서울 위대한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18(토) 오후	세계문화예술올림픽 대강당 주회 (사) 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정석 목사) 010-3927-0691
19(주)~22(수)	전남 무안 총만안 교회 (한창남 목사) 010-2471-6266
24(금) 오전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한국기독교총동회
	(대표회장 배용신 목사 준비위원장 김동근 목사 010-2358-9232)
24(금) 오후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원장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6(주) 오후	인천 꿈이 있는 교회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Good TV 부흥사단 김용희 대표회장 취임예배
27(월) 오후	천안 위대한약속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8(화) 오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고향교회 무너진다” 출향성도들 마음 모아 다시 세웠다

54년 전 지은 명랑교회 재건축 위해 헌금 모아 새 성전 완공

벌써 54년 전의 일이다. 당시 전북 김제 명랑교회 예배당은 성도들의 손으로 완성됐다. 산중턱 암반을 깨고 교회를 지어야 해서 어른들은 손수레로 자재를 옮겼고 학생들은 산 입구부터 줄지어 빨간 벽돌을 날랐다. 손이 까지고 피가 났어도 찬양을 부르며 했던 공사는 힘든 줄을 몰랐다. 완성된 교회는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교회’였다. 그런 교회도 세월 앞에 조금씩 허물어졌다. 지붕에는 비가 새고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웠다. 200명 넘게 모인 성도도 어른신 30여명만 남았다. 하지만 명랑교회에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출향교인들은 엄마 품 같은 모교회를 잊을 수 없었다. 명랑교회 출신 성도들이 모인 명신회(회장 안영환 원로장로)가 고향에 새

예배당을 선물하고 11일 헌당 예배를 드렸다. 출향교인들이 기억하는 명랑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 작은 교회에서 배출한 목회자만 46명(목사 35명, 전도사 11명)이나 된다. 안영환(71·전성교회) 장로는 “명랑교회는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와 선후배 사이 끈끈한 정이 있던 교회였다”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한 이도 많았지만 명신회 이름으로 꾸준히 모임을 가졌고 교회에 필요한 승합차 등을 선물하는 등 모두 교회에 애정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반세기 넘게 이어온 고향 교회에 대한 ‘전사랑’은 예배당이 점점 낡아질수록 명신회 회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회의 끝에 2019년 교회에 새 예배당을 지어주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안 장로는

“느헤미야가 고향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과 같은 사명감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났다”며 “교회학교 시절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교회 건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예상 공사비 7억여 원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다. 회원들은 심시일반 공사비를 각출해 헌금했다. 먼 미국에서 2억8000만원을 보낸 성도도 있었고 회갑잔치 비용,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성지순례 비용을 기꺼이 내놓은 이들도 있었다. 백종현 명랑교회 목사는 “어르신들이 새 예배당을 보며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 지역주민에게 덕도 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며 “고향을 잊지 않고 예배당을 선물해준 명신회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지역에 더 좋은 교회로 남도록 복음 전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27)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재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튀르키예에 100년만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피해는 2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20만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다. 튀르키예에서 일어났지만 시리아 지역에도 큰 피해가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온통 집박으로 내몰렸다. 조금이라도 가능한 주지가 있으면 그곳에 함께 몰려 들어가 임시 집단 거주를 하고 있고, 교통이 막혀 음식 조달이 되지 않아 긴급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과 한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서는 구조단을 파견하고 도움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상사태 선교사들과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적인 긴급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한데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날 때에 가장 큰 규모의 협력을 하고 있는 단체가 UN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다. 1991년에 설립되었는데 UN 사무총장이 긴급구조의 필요가 있을 때에 회원국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첫째는 더 효율적이고 적합한 대응을 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단체들의 공조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둘째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며, 셋째는 피해당사자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인도적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을 통해서 피해당사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기구이다.

이들은 긴급재난구조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당사국과 각 국가와 NGO 들에서 모여든 긴급구조팀들과 매일 모임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종합하고, 자원을 배치하고, 협력을 촉구하며 긴급구조에 대처한다. 그래서 재난구

호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나 단체의 구조요원들은 함께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한국의 긴급구조팀이 들어가서 구조를 시작하고 있다. 이들을 현장에서 통역과 현지 적응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T국의 한국사역자들이다. 한국사역자협의회는 피해지역에서 일하던 인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 평소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대피시키고 함께 일해왔던 현지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런 긴급구조가 끝나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재난구조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재난구조는 재난의 정도가 어떤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되는데 최근에는 통신 시설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선전화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되었으며, 드론등을 이용하여 더욱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1990년 필리핀의 바기오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2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이 가장 먼저 지진의 피해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구조작업을 하다가 4일 후에 공항이 다시 열리고 더 큰 피해가 일어난 것을 알게되어 구조작업이 늦어져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다. 이처럼 지진과 같이 피해지역이 넓게 퍼진 곳은 즉시 조사에서 빠지거나 소홀한 곳이 있는지 조심해야한다. 현황 조사에는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며 지도를 그려서 피해상황을 표시하는 것이 전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이 시기에 피해지역 사람들이나 대표자와 모임을 가지면서 구체적

인 현장의 필요상황을 더 잘

파악하게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와 함께 대응계획의 단계로 들어간다. 대응계획은 상황 파악에 근거하여 어떤 필요를 누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를 대략 나누는 일을 한다. 여기에 UN OCHA와 같은 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재난과 연관된 전문가들과 피해지역 정부와 관련자들이 포함된 팀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위기대응팀이 구성되는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해야 한다. T국의 한국사역자협의회는 작은 규모로서 이런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팀을 구성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교지는 모든 가능성들이 본국보다 크기 때문에 각국의 선교사들은 사전에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실질적인 자원동원의 단계이다. 어떻게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 자원을 동원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각국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한사협은 이 단계에서 한국의 선교를 대표하는 기구인 KWMA 와 미주한인교회의 KWMC 와 협력하여 한국측의 모금과 미주에서의 모금을 대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것은 재난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줄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절차이다. 예전에 있었던 몇 나라들에서 재난구조 이후에 불거진 불상사를 경험한 한인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이 협력체계를 만들고 추진하게 된 것은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조치이다.

이제 구체적인 구조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긴급

식량 보급, WASH (Water, Sanitation, Hygiene)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식수, 공중위생 시설을 제공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긴급구조의 단계에서 보다는 구조된 사람들의 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수준 높은 기준이 국제적인 구조 활동에는 적용되고 있다. 지진의 경우는 특히 많은 사람들을 여진에 대응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비상시기에 NGO들에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교회와 선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해야 할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물품 (중고물품 포함) 기부 대신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물품 기부는 물류 수송 절차, 경비, 현지 상황과 문화 적응성, 환경 문제들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다. 현장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기부품을 받는 경우 수령 기관의 철저한 기준에 따라 필요 물품에 대해서만 수령하는 것이 좋다.

현장의 긴급구조 활동 시 이재민 보호 및 존중이 우선이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는 사람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존중하며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긴급구조에는 이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활동해야한다. 긴급 구조 시에는 이재민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들을 수 있도록 피드백 장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국제 구조 조정 체계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와 UN OCHA 에 설치된 Reception Desk를 거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할 것은 전문 인력 외 봉사활동 참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긴급 구조 현장은 고위험지역이다. 전문적인 훈련된 인력이 아니라면 개인 봉사활동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흔히 사진을 찍고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긴급구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교회의 봉사활동은 어느정도 정리된 이후에 복구작업을 위해 필요할 때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전문 훈련을 받아서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에

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사전에 이런 비상 상황을 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지진의 경우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외국 의료팀의 수요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의료인의 허가 받지 않은 의료 활동이나 약품 제공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기선교에 의료인들의 수고가 많다. 그러나 현지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큰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약품의 경우도 현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 구조는 이재민 모두에게 일반적인 인류애의 표현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종교행위의 금지에 대한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의 기회로 삼는 구조활동은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종교에 따른 차별적인 구조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교회와 선교사들이 재난 구조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지의 교회와 교인들 만을 대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추후에 당한 이재민들을 차별하여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때로 미래의 선교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 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때에 더 좋은 복음증거의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기관들이 모금한 재정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사용할 때에 피해를 입은 교회라고 해서 먼저 건물을 복구하는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임시거주 시설을 돕도록 하고, 필수품들을 나눌 때에도 교인들이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돕도록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자신을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보는 신앙의 성숙함을 배우며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앞장 서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복음 증거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구조품을 나눌 때에 전도지

를 삽입하여 나누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할 것이다. 구조품을 나누는 기회에 복음 전도를 먼저하고 구조품을 나누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는 모금된 금액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이기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진 피해지역을 방문하신다면 교인들 만을 모아 구조품을 나누는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는 재난 구조를 통하여 평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확장성과 이재민들에게 신뢰도를 쌓음으로 인하여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 (Earn the right to be heard)으로 만족하고 미래의 복음전도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복구가 필요한 시기에 많은 지원 단체들이나 개인들도 관심이 사라져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선교적 관점으로 일하는 NGO이다. 재난이 일어난 시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금해서 이름을 내고 떠나버리는 단체가 아니라, 선교적 관점으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귀한 현금을 사용하는 선교적 책무감이라고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시기가 선교사들이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재난에 긴급구조와 구조가 중요하지만, 선교사들이 남아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날이갈수록 재난이 더욱 많아 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 재난의 소식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나의 곁에 다가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을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독교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선교에 창의적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마음뿐만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절실한 시기이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구조품을 나눌 때에 전도지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25강. 광야 38년, 놋뿔 그리고 도피성 / (민수기 20-36장) (2)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40여년에 가까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민 21:10-20). 모압 평지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을 듣고 40여년 광야 생활을 하다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입니다.

주지 않으신 땅, 넘겨 주신 땅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했던 같은 말을 합니다(민 20:17, 21:21). 그냥 지나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은 그의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민 21:23-26). 그리고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민 21:34)고 하시고 역시 승리를

주시합니다(민 21:35).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예서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 주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민 22:1).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2:9). 그런데 모압왕 발락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 번민합니다(민 22:2,3).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술사 발락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민 22:5-35). 그들은 발락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까(민 22:6). 발락의 한결같은 말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민 22:6,17, 23:7,13,27)는 것이었

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민 22:12). 발락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민 22:13)며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락은 갑니다. 성경에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셔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민 22:20,35) 가나안 정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발락은 갑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들의 입에 설탕물 같은 유혹의 말을 주어 보내자(민 22:16,17) 발락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민 22:18)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갑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

시가 있었음에도, 중간에 여호와와의 사자를 보고서도(민 22:22-35) 그는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발락이 와서 기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다 끝이다' 생각했겠지만(민 22:36,37) 발락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

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민 23:8)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도 복이 되지 않았던 야곱처럼 발락이 아닌 발락의 할아버지가 저주를 한들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민 22:18)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갑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

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속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민 24:13)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민 24:17)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민 24:25). 민수기의 기록에서는 여기까지 발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후에 발락이 불의의 삶을 사랑하여(벧후 2:15)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느 13:2). 그 저주는 바로 발락이 꾀를 내어(민 31:16)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하고 행하게 하여(계 2:14)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께 정계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을 칠때 발락도 죽임을 당합니다(민 31:8/ 수 13:22). 어리석은 술사의 최후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진노의 불을 쌓는 유대인 (롬 2:1-5) 찬 412장

지금 바울은 이방인 죄의 실상을 밝힌 후,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외식주의자입니다. (1)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여 변명할 수 없는 외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외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경건의 가면 속에 자행되는 그들의 거짓은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고했었습니다. (2-4)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겸손한 응답보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

신 사랑마저 버리는 사탄의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셋째, 회개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5) 외식자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오심을 떨치시는 굳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성령 훼방 죄, 회개치 않는 심령 곧,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을 경계하고 즉시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갑시다.

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롬 2:6-8) 찬 543장

사람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6) 어떻게 갚으십니까? 첫째,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7) 참고 선을 행한 사람은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여기, 선을 구함은 "영광, 존귀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마 6:33)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눅 11:13) 이것은 모두 영생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어는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요 17:3) 둘째, 진노로 갚으십니다. (8) 교만으로 당을 만들어 남을 판단함을 좋아하는 비진리와 불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사랑마저 거절되는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창세 이래로 준비된 영벌을 받을 염소 부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 25:46) 그 둘 중 어디인지 살피십시오.

수 당신은 어디에 속했는가? (롬 2:9-12) 찬 344장

또 다시 바울은 선과 악의 실상을 말합니다. 첫째, 그 정의: 하나님과 그의 복음만이 선이고 그것을 떠난 것은 악입니다. (11) 여기 악과 선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기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악의 시금석이란 것입니다. 둘째, 그 성격: 악은 심령에 끈고와 환난을 가져오나, 선행은 영광, 존귀, 평강을 가져옵니다. 앞서 말한 영생과 영벌, 빛과 어둠의 결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실

상: 헬라인이나 유대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진리로서 오직 예수 믿음의 길만이 구원임을 보여줍니다. (12) 창세 이래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타락 후에도 변함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러 영적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선 곧, 믿음의 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악으로 처리됩니다. 선을 가장 한 악이 많은 이 시대에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목 세가지 의 (롬 2:13-16) 찬 265장

본문은 세가지 의를 보여줍니다. 첫째, 율법의 의 (13)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의 의란 행함으로 의에 이른 것을 목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시 너희도 기록하라"는 표준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기에 인간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항상 모든 율법을 그대로 범하지 않을 자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양심의 의 (14-15)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 의에 어떻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율법,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알고 보면 유대인의 율법은 이방인 양심의 문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언제나 율법의 의를 따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담의 부패성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복음의 의 (16) 그래서 나타내신 복음의 의, 곧 죽음으로 그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드린 믿는 자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 갈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 의를 따라갑시다.

금 유대인의 외식 (롬 2:17-24) 찬 405장

유대인의 외식은 어떤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 율법을 의지하나 그것을 범했습니다. (17) 율법을 알고 의지하나 그것을 범한 것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초인 하나님과 그의 의, 인, 신 (마 23:23)을 버리고, 실제로 결날됨으로 떨어진 것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자랑하나 그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7-20) 율

법의 핵심인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자랑 하고 그 본을 가르치지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맹인이고, 어린아이이고, 어둠이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 경건을 이용하여 외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21-24) 겉과 속이 다른 이중생활을 살면서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나 경건의 능력을 잃은 생활을 살아가는 그들은 화있는 자로 정죄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그대로 살려고 힘써시다.

토 새 언약 백성 (롬 2:25-29) 찬 347장

백합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의 대다수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까? 첫째,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28) 이것은 외식주의 곧 인본주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우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외식이 큰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음의 활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9) 활례란 하나님 백성의 몸에 새긴 표식인데 성령세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함

니다. 불순종은 마음의 활례를 받지 못함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없는 마음은 그 어떤 경건의 모양을 보일지라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29)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였기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기대해야 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8)



윤임상 교수
(월드시션대학교대학원)

에반스의 축복

종교 철학자 정재현 교수께서 쓴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란 책에서 중세 로마제국 시대에 벌어졌던 전쟁 영웅들을 위한 개선식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하며 교훈으로 가슴에 담게 합니다.

당시 로마제국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위한 개선식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개선 행진은 장군이 로마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식 하루만큼은 장군이 에트루리아 (BC00-100년까지 이탈리아 중북부지역에 있던 고대국가, 당시 지중해 국가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 국가로 평가됨) 관습에 따라 얼굴을 붉게 칠하고 네 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는 '살아 있는 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으로 숭배받는 장군의 영광스러운 전차에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노예 한 명을 같이 탑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예는 개선식이 진행되는 내내 끊임없이 "모멘토 모티스(Memento Mortis)"라는 말을 그 장군에게 속삭여 줍니다. 이 상황에서 장군이 우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죽음에는 신분도 계급도 없다는 상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비록 장군에게 엄청난 찬물을 쏟아붓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진정한 축복의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한 역설의 진리라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합니다. 즉 비움의 역설을 통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 비천한 노예의 외침은 그 순간만큼은 최고라고 하는 그 장군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이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장군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군에게 겸손의 빈 공간을 만들라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흙이나, 늦으로 빳겨져서 만든 그릇이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릇 속의 빈 곳을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의 첫 번째 설교로 유명한 이 산상수훈에서 축복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덟가지 축복(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원리와는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이 축복의 원리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의 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움을 통한 채움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역설의 진리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안뎀 에반스(H. R. Evans)의 "축복"에서 이 메시지를 음악으로 담

았습니다. 이 곡은 한국교회에 알려진 성가곡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명 성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들에서 일 년에 한 번 이상은 찬양대에 의해 꼭 불려지는 곡입니다. 이 곡은 1937년에 에반스에 의해 작곡되었던 성가곡으로 이 곡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담긴 축복에 대한 깊은 의미를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훌륭한 안뎀으로 평가됩니다.

서주에 예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암시하듯 베일에 찬듯한 하모니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3가지 형태 (화답송, Responsorial Style 무반주, A Capella Style 대위법, Counterpoint Style)의 음악적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축복의 신비를 드라마로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 바리톤 솔로와 합창이 화답송 형태로 8가지 축복의 원리를 펼칩니다. 솔리스트가 예수님의 역설의 축복 원리를 제시하면 합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를 바탕으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축복을 또 다른 역설로 말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무반주 아카펠라로 표현하며 고요함 가운데 내면의 혁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12절을 바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진정한 축복의 클라이막스를 대위법적인 작곡기법을 동원하여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며 축복의 광파르를 울립니다. 마지막 다시 화성적인 선율로 돌아와 하늘의 축복의 상을 외치며 대단원의 마무리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모든 조건 속에서 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비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팔을 뻗을 수 있는 영적 성숙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픔과 고생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생각조차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환상입니다. 바로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나타나신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았다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무참하게 쓰러져 가며 외로이 끌고다오 향하시는 예수님, 그 무능의 극치를 보이는 예수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때에 우리가 비로소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진정성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소유할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절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판매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제 8회 독후감 공모전 당선작

장려상 손소영 집사 (보스톤은혜장로교회)

하나님을 말하다(팀 켈러, 두란노)

얼마 전 신약성경 필사를 다 마친 후 신앙 도서 독후감 공지를 교회에 통해 알게 되었고 책 선정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공고롭게 목사님과 남편의 추천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을 연이어 2번 정독했다. 내용이 은혜롭고 도전을 받아서가 아니라 당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가의 생각이나 경험보다는 온통 유명인의 책 또는 글귀나 생각을 인용하여 현학의 허세를 보이고자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뉴욕이란 지역과 계층에 대한 필요 이상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반감까지 들었다.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며 나는 피아노를 전공해서인지 내 주변엔 모두 기독교인들이었고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비기독교인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었다. 이 책을 추천한 목사님과 남편 역시 공학박사다. 굳이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 때문이다. 시종일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점을 애써 증명하여 믿게 하려는 내용이 전부라 여겨졌고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식층이기 때문이란 설명이 와 닿지 않았다. 왜 이 명명백백한 진리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나는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도 없으며 주변에 수많은 공학, 의학 박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비기독교인들 또한 만나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만이지 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과학과 철학과 영화와 사람의 간증을 통해 증명하려는 지가 어리석게 여겨지다 보니 내용은 지루하여 열른 읽고 끝내자는 생각만 하게 되었다. 하지만 2번을 읽고 난 후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일단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없이 믿어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다는 점과 주변 환경 역시도 감사할 조건이었으며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교회 뿐이었다는 사실에 뜬금없는 자긍심도 일어났지만 이내 깊은 회개에 내 맘 한편에서 일어났다. 사실 신약성경을 필사한 이유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같았다. 교회내 끊이지 않는 관계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게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했다. 살아오면서 수십 번 읽은 신약성경인데도 이번엔 유독 반복적으로 내 눈을 사로잡은 단어는 형제 사랑과 용서였고 이 책 말미에도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의 고통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그토록 알길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책을 한번 읽었을 때 삼위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기뻐하며 평화롭게 운행하는 상태를 참으로 비유한 걸 읽으며 정말 기발한 발상이라 생각한 것이 내 감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두 번을 읽으면서 이 책의 수많은 가르침에 공감을 하고 때론 회개도 하였고 교회는 죄인들을 치료하는 병원이란 글귀를 읽으며 교회 내 직분자가 성화되지 못한 무례함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직분을 직위로 여기며 권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상처받고 맘속으로 그들을 판단하며 정죄해왔던 병 들고 힘든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도 생겨났다. 또한 인간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우상을 채워놓게 된다는 사실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며 내 마음속 우상에 대한 성찰도 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타성에 빠진 종교 행위를 하며 스스로를 신실하다 생각했던, 자기 의로 점철된 인간이 바로 나란 사실도 곱씹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빠진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며 죄된 속성에서 자유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못한다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이 책에 기록되었듯이 용서는 그리스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니 이전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살롬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 진정한 적은 로마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폭력 뒤에 도사린 악의 권세였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한 잠언의 말씀처럼 언제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길 소망한다. 또한 진정한 크리스천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라는 글귀에 도전을 받았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디 깨어 기쁨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또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강한 영적 군사로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인애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sonlee94@naver.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아시아 X국

▲ 종족명: NZ 종족

▲ 인구: 70만 명

▲ 종교: 민속신앙, 토속신앙

▲ 프로젝트 소개: 2000개 마을에 흩어져 사는 NZ족은 오랫동안 구어 문화로 살아왔다. 2008년 시작된 성경 번역과 함께 이들을 위해 복음을 소개하는 노래와 간증, 성경 이야기, 성경 본문을 담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들이 계속 개발·사용되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2018년 말 신약성경이 완성되었고 구약성경은 주요 역사서가 번역되었으며, 남은 부분도 번역되고 있다. NZ족 그리스도인들이 번역된 말씀을 전파하며 성장하고 있다.

- ▲ 기도제목: 1.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성령께 붙들려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2. 성도가 연합하여 모든 마을에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은 구약성경을 번역하도록 3. 구전 문화 속에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가 개발되고 잘 활용되며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새책소개



정정숙 시인

시집 '만남'

몇 년 전에 심은/ 앞마당의 석류나무 한그루/ 가을이 깊게 찾아오니/ 손이나 발도 없이/ 발갈래 물들어 놓은 홍보석/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정정숙시인의 '만남'의 한 구절이다. 2022년 10월, 늦은 가을에 미주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을 역임한 정정숙 시인의 첫 시집 '만남'이 출간됐다. 시인은 서

문을 통해 '고운 단풍 물드는 가을에 첫 시집을 수줍게 내 놓는다'며 '만남'의 출간을 소개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시를 "내가 누리는 삶에 대한 감탄"이라고 소개한다. 자연과 삶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아름다운 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 감탄한다고. 시인이 정의 하는 '시'는

"자신의 위로이며 친구, 아울러 소통"이라며 "소통이 주는 선물은 정감"이라고도 표현했다. 본 시집은 총 4부로 나누어 '가슴 빛, 만남, 필터, 끈, 나파벨리 솔라지' 등을 비롯해 총 112편의 시로 꾸며졌다. 한편 해설 부분에서 김완하 시인(한남대 교수)의 '가을 행 버스', '봉선화' 등에 대한 해설을 수록했다. 시집 구입



에 관한 문은 byungjhung@gmail.com 으로 하면 된다. (아성자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 47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47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1. 총회일시: 2023년 5월 23일(화) - 26일(금) (3박4일) * 주제: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2. 총회장소: LaGuardia Hilton Hotel(Prev. LaGuardia Plaza) 104-04 Ditmars Blvd, Elmhurst, NY 11364 718) 457-6300 퀸즈장로교회(KAPCQ)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3. 등록비: 총회 등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미화 USD)

Table with 3 columns: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and registration fees for 1st, 2nd, and 3rd nights.

4. 유의 사항

- 동반 자녀 3-18세 \$170, 18세 이상 \$305(2인1실)
- 총회 결의에 따라 각 노회의 공로 및 원로목사님의 등록비는 50% 할인입니다.
- 총회 파송선교사는 선교보고와 기타 일정을 위해 2차 등록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회에 일찍 오시거나 늦게 가시는 분 중에 호텔 예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된 날수의 비용은 합성된 비용 2인1실 / (1인 \$55), 부부(\$109), 1인실(\$130)으로 가능합니다.
- 47회 총회홍보 홈페이지(www.kapc.org)를 통하여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3차 등록 마감일인 3월30일 이후에는 호텔 숙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총회 불참 시에는 호텔과 계약상 등록비를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총회 당일 접수는 오전 11시부터 하며,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퀸즈장로교회에서 저녁식사(오후 5시)후 교회예배(오후 7시)를 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총무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 동시통역: 영어권 총대를 위하여 동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등록안내

총회 등록비(Check 또는 Money order)와 신청서는 총준위 회계(박정봉 장로)에게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취인 (Pay to the order) : KPCQ
* 주소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Att: Elder James Park)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총회장: 홍귀표 목사, 서기: 안병권 목사, 준비위원장: 이윤석 목사, 서기: 임병순 목사, 총무: 정기태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 지난 2월 4일 (1908호) 본지 "KAPC 47회 총회소집공고"중 편집국의 실수로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인/터/뷰

권호 교수, 임도균 교수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본문(text)-연관성(relevance)-적용(application)-전달(delivery)이 핵심 요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2023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 및 강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권호 목사(한국합신대 교수/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사랑의교회 협동목사)와 임도균 목사(한국침신대 교수/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공동대표/늘사랑교회 협동목사)를 만났다. 두 교수는 강의 뿐만 아니라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의 공동대표로 사역하며 ‘새강해설교학교’를 통해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고 있다. 두 분을 통해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가 무엇인지 들어 본다.



임도균 교수(좌) 권호 교수(우)

△ 미국 방문 일정과 목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새강해설교학교”(New Expository Preaching House)의 설교세미나와 출판 및 설교 컨설팅을 통해 목회자들의 현장 설교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국내 세미나뿐만 아니라 해외 및 선교지 사역으로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 달라스, 애틀랜타, LA, 하와이에서 세미나를 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주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뉴욕에서 다시 미주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열린 설교세미나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가 주관하여 ThM과정 세미나로 1월 31일부터 2월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현대 내러티브 설교의 철학과 기법”이었습니다. 본문이 살아나는 설교 철학과 내러티브 설교의 특징을 다루고 3가지 내러티브 설교기법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설교 실습 평가를 통하여 현장성 있는 세미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는 참신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또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너를 부르신다(마 4:19-20)”라는 주제로 개강수련회를 말씀으로 인도했고, 퀸즈장로교회에서 2월 4일~5일에 “살아나는 믿음,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직수련회/특별부흥회에서 다섯 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통하여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믿음의 고민과 도전에 대해 길을 찾고 삶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번 부흥회는 지금까지 한 명의 강사가 설교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 두 명의 설교자가 순차적으로 설교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와 스타일이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 두 분이 함께 사역하게 된 동기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는 처음 사우스웨스턴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만났습니다. 함께 공부하며 다양한 설교학 이론과 기법을 심도 있게 익혔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캠퍼리지에서 있었던 설교학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한국과 이민자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한 교육과정과 컨퍼런스가 필요

△ 설교란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이고,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공동집필하신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란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경건한 목상과 연구를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늘날의 삶과 연관시켜 전달하며, 청중들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도록 적용해서,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설교자의 영적 행위입니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플랫폼』(아가페북스, 2021)은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

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적용”(application)입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가 어떻게 현실 시대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본문에 나타난 진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청중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달”(delivery)

본문에 있습니다. 미디어 시대에도 설교의 본연의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미디어 시대에는 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청중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미디어 설교자들은 청중들과 관계성을 형성하기 힘들지만,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설교자가 현장에서 역동적인 설교전달의 발전에서도 힘을 쓴다면 듣고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미래와 변화하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이 살아나는 “본연적설”로 말씀의 종의 사명을 귀히 감당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신학교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키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새강해설교학교를 통해 한국과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교육할 터”

함을 절감했습니다. 임 교수님과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 가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설교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자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저희는 우리의 비전대로 “새강해설교학교”를 세웠고 이 연구소의 대표 세미나인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Text-Living Preaching)를 통해 본문에 충실하면서 현대와의 공감을 통해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내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견고한 설교철학과 실제적 설교기법을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길 원합니다.

는지에 대한 이론과 기법을 소개하는 저희의 여러 시리즈 출판 첫 핵심 서적입니다.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필수 요소를 이해하고 설교를 작성 및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성경 본문”(text)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문의 의미(meaning of a text)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첫 출발점이고, 씨앗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연관성”(relevance)입니다. 연관성은 성경이라는 오랜 시간을 거쳐 온 텍스트를 오늘날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단계(relating step)를 말한다. 좋은 설교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왜 몇 천 년 전에 써진 본문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

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라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힘을 잃습니다. 설교자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기법(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 skills)을 익히고 사용해서 메시지가 명확하면서도 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 현대는 미디어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회자들은 어떤 설교를 해야 이 세대가 귀담아 들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추구하며 본문-연관성-적용-달리버리를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어느 시대의 설교든 설교의 정당성과 권위는 설교

심방 등을 통하여 관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양적 관계가 미디어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적용도 다양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과 다른 선교지에서 청중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미디어 설교는 이러한 부분까지 방영해서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지역교회 설교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시시적절한 적용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세대를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On & Off 전달방식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엔데믹 시대에 현장에 돌아온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때 더욱 생동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 어떤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속한 신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강해설교학교를 통해 한국과 이민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를 교육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외 설교 네트워크 설교를 통해 다양한 설교의 비전과 기법을 알리고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를 초대해주신 퀸즈장로교회와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김재상 기자)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교회가 약하고 힘들어 하고 있어서 다시 부흥되게 하려고 디모데목회훈련원에서 한국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이영희 전도사님을 모시고 전도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각 지역 교회가 전도하여 부흥되기를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아래와 같이 초청합니다.

- 3월 1일 (수): 온누리장로교회 (조문희 목사) 저녁 7시30분
- 3월 3일(금)-5(주일): 뉴욕신광교회 (AKRCA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 회장 박희열 목사) 저녁집회 금,토 오후 8시30분 주일 오후 4시
- 3월 5일(주일): 뉴저지 동산교회 (윤명호 목사) 주일1부 9시 2부 11시
- 3월 6일(월)-8일(수): 워싱턴 메시아장로교회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주관 회장 심대식 목사) 저녁집회 월,화,수 저녁 8시
- 3월10일(금)-12일(주일): 코이노스영생장로교회 (오건 목사) 금:저녁 7시30분 토:새벽 6시 저녁 7시
- 3월13일(월)-15일(수): 뉴저지 동산교회 (뉴저지교회협의회 주관 회장 박근목 목사) 저녁집회 월,화,수 저녁 7시30분
- 3월17일(금)-18일(토): 나성한인교회 (신동철 목사) 금 8시 토 7시

디모데목회훈련원(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Church Growth)
주소: 195 Central Ave #4502 Metuchen NJ 08840B United States
연락처: 201-954-1193

PTSI 디모데목회훈련원 원장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For Church Growth www.ptsimission.org